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 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버지니아 한인회장)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사진)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4일(한국시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간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 한인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당장 사퇴, 해임 시켜야”



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

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

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 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쇄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동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

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불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 “주한미군, 중국 견제 집중...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할 필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부차관보 인터뷰  
트럼프 당선 덴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사진) 전 국방부 전략·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3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캐나다를 대신해 G7(주요 7개국)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대(對)한국 외교 노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일체형 확장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 그룹(NGC)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지난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리

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의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더 내야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하나.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다.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엔 거침이 없었다.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주저 없이 “중국이 먼저”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하는 이유다. 영국·프랑스의 핵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역지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 8면 ‘콜비’로 계속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김병주 회장  
2500만불 기부



한국 최대 자산가 중에 하나인 김병주(사진) MBK파트너스 회장이 모교인 필라델피아 소재 하버포드칼리지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기부액은 학교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으며 학교 내 ‘윤리적으로 자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총 자산 97억 달러로 한국내 두 번째로 재력을 가진 김 회장은 11살 때 가족과 함께 뉴저지로 이민와 하버포드에서 영어학으로 학사학위(85년)를 받았으며 이후 하버드 MBA를 마쳤다. 김 회장은 “윤리가 없는 리더십은 영혼이 없는 신체와 같다”며 “연구소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3면 ‘기부’로 계속 최인성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기 물반지모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대통령,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 다 바꾸겠다는 각오해야”

**윤 대통령, 낙선·낙천의원 오찬**  
“대통령 가까운 인사들이 평가르기”  
“대통령, 세세한 사안까지 간섭 안돼”  
윤 대통령 “저의 부족함 깊이 성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을 만나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고견을 들려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는 명시적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성찰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찬이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성토회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평가르기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직설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서면 브리핑으로 일부 공개했다. 우신구 의원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고, 최재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며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전한 비공개 발언의 강도는 더 컸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쳐다보며 “장관에게 책임을 맡기고, 또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 경질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공격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며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안까지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평가르기를 하고 당을 분열시킨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낙선한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소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며 “남은 임기 3년간도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스스로 당선자보다는 낙선자를 먼저 만나길 원했다”며 “당연히 쓴소리도 각오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이 당 지도부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위원장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선 “정말 오지 않은 것이냐”는 설왕설래도 오갔다고 한다.

한편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일부 참모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박태인·전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불출마·낙선·낙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격려 오찬'에 참석하며 김영식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 ‘당대표 비운, 원내대표 친운’ 부상... 나경원·이철규 주목

**나경원·이철규 함께 윤 대통령 만나**  
**나·이 연대설 속 ‘도로 친운당’ 비판도**

여권에서 ‘당 대표 비운, 원내대표 친운’ 구도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한다. 최근 ‘찐운’으로 불리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3선) 의원이 여러 당선인 그룹을 잇따라 접촉하는 등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대패했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센 상황에서 친운이 다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배경으로 친운계의 수적 우위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이철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참패했지만 영남과 강원에서 현역이 대거 생존했다. 게다가 이 의원의 사무총장과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영입한 초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인까지 합하면 대략 60명 정도를 범친운으로 볼 수 있다. 108

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비운계 당 대표 후보군으로는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판장 사태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나경원 당선인은 총선 직후 이 의원 주선으로 윤 대통령을 만나는 등 비운 후보군 중에서 친운계와 소통이 되는 당 대표 카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나경원-이철규 연대설’까지 나온다. 친운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권은 비운계가 쥐며 균형을 맞출 거라는 게 ‘비운 당 대표, 친운 원내대표 구도’를 선호하는 당내 인사들의 논리다.

이창훈 기자

## 김흥국 “여당, 고맙단 전화 없어 섭섭”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던 가수 김흥국(사진)씨가 총선 이후 여권에서 감사인사가 전혀 없었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24일 김흥국씨는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총선이 끝난 뒤 고맙다,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도,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말도 없었다”며 “이러면 가뜩이나 정치

색 띠는 걸 꺼리는 우파 연예인인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김흥국씨는 총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흥국 들이대 TV)을 통해 “내 자리로 돌아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중에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안 고생했으니까”라며 “저는 가수, 예능인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너무 아까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국씨는 “(한 위원장과) 한번 통화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서 안 됐다”며 “서로 고생했지만 그래도 소주 한잔하자”고 요청했다.

진행자가 “한 위원장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김흥국씨는 “나 혼자 먹어도 된다. 옆에 있으면 된다”고 했다. 총선 지원 유세와 관련해선 “저를 원하고 연락 오는 곳은 거의 다 갔었다”며 “간데는 다 됐다”고 자랑했다.

선거 때 연예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김흥국씨는 “대선이란 총선이란 좌파 연예인들은 막 나온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방송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 할 거 다 하고 행사할 거 다 하더라”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파 연예인들은 누구 하나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어 겹을 먹는 다”며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라는 말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제가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당 차원에서 연락이 하나도 없다”며 “인간적 차원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쓴소리했다. 이재명 기자

**워싱턴 날씨 (°F)**

26일(금) 66~47	29일(월) 87~66
27일(토) 63~52	30일(화) 87~64
28일(일) 84~62	1일(수) 80~60

4월 25일(목) 61~4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워싱턴DC 동공화 원인은 '연방정부'? 연방정부 건물 이용률 12% 불과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정부 부처 본부 건물의 실제 이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공공건물서비스위원회(PBSC)와 연방정부소유건물개혁위원회(PBRB)가 연방조달청(GSA)가 소유한 연방정부 부처 본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이다.

PBRB는 작년 1월부터 9월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워싱턴DC 본부 건물 내 근무자와 외부 방문객 등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방해외원조국(USAID)으로 26%, 가장 낮은 곳은 연방해외미디어국(AGM)으로 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인력 부족 사태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도 이용률이 30%에 불과해 총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워싱턴DC를 포함한 전체 연방정부 부



Washington D.C. 전경

처 본부 건물의 실제 이용률은 25%라고 밝혔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 구입과 유지에 위해 과도한 세금이 집행될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도심 경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불필요한 건물 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구조조정 한다면 연간 수천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SA 자료에 의하면 연방국무부와 국방부 등 규모 24위 이내 연방정부 부처가 보유한 빌딩은 25만채로, 실내 면

적만 24억 스퀘어피트에 이른다. 이 빌딩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 지출예산은 160억달러로, 이용률로 계산할 경우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 정부 계획에 의해 건설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오랜 연한으로 인해 현대적 설비 리모델링도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건물을 매각하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최정에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이 예산감축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욱재 기자

## “상주 농산물, 미국에 전략 수출”

승원유통, 경상남도 상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승원유통(롯데플라자마켓, 회장 이승길-사장 이상민)과 경상남도 상주시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메릴랜드 소재 승원유통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승원유통 이상민 사장, 경상남도 상주시 강영석 시장, 안경숙 시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상주시 주요 수출품목인 배, 포도, 쌀, 꽃감 등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상주시는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 승원유통은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상주농산물 수출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해 총 32개국에 총 4200톤 규모의 시가 2800만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이중 미국은 수출금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주시는 사인머스켓의 수출 선두주자로 전국 포도 수출의 38%를 담당하고 있다. 승원유통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안경숙 상주시의장, 이상민 승원유통 사장, 강영석 상주시장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은 지난 2010년 메릴랜드에 설립된 이래 17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주 한인 유통 기업 선두주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강영석 상주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승원유통과의 협업을 통해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상주시 농특산물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

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업계 반대 거세... 소송전 전망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전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한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하은 기자

## VA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대인·대물 보상 커버리지도 인상

버지니아의 모든 운전자는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버지니아는 무보험자의 경우 5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보험 가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2023년 정기회기 당시 자동차 등록시 반드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자동차 등록후 한달이 경과한 후에도 보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현재 500달러를 내고 무보험 운전 중인 자동차 등록자는 7월1일을 기해 효력이 중단된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 커버리지(liability) 중 1인 사망 혹은 부상 관련 최소 가입비용이 현재 3만달러에서 2025년 7월1일부터는 5만달러로 올라간다. 2인 이상 사망 혹은 부상의 경우에는 현재 6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된다. 대물 손해배상도 2만달러에서 3만5천달러로 인상된다.

금융정보사이트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운전자의 1인당 연평균 풀커버리지 보험 비용은 1892달러로 전국평균 2314달러에 비해 18% 더 적다. 김욱재 기자

▶면 '기부' 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오는 7월 1일부터 하버포드의 이사장 역할도 맡는다.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현재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약 3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장인은 박태준 전 국무총리다.

한편 김 회장과 부인 박경아씨는 202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오스카탕'에 개보수 비용 10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전신실 명칭을 '김병주·박경아 갤러리'로 붙인 바 있다. 최인성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사라진 '코리아타운', 창고에 처박혔다

<원형 조형물>

서비스국서 철거만 하고 방치  
허트 시의원 사무실측도 몰라  
한인단체들 수소문해서야 확인



1 지난 2011년에 설치된 한인타운 조형물에는 영문으로 'Koreatown'이라고 쓰여 있었다. 2 올림픽 블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에 설치된 조형물의 기둥 부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 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3 현재 사라진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 남아 있는 하단 부분.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임을 나타내는 상징물, 안내판 등이 훼손된 채 방치되면서 시 정부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조형물은 한인사회도 모르게 철거된 후 소재 불명 상태로 있다가 한 창고에서 최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에 따르면 올림픽 블러바드 선상의 원형으로 된 돌(캔모어 애비뉴 인근)과 소형 탑 형태(호바트 블러바드 인근) 등 두 개의 조형물이 LA시정부에 의해 철거됐다.

이 조형물들은 태극 문양과 함께 'Koreatown' 'Welcome' 등이 새겨져 있어 그동안 한인타운을 알리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팬데

믹 때부터 자동차사고, 낙서 등으로 파손된 채 수년간 방치돼 있었는데 어느 날 조형물들이 없어졌다는 제보를 올해 초에 받았다"며 "처음에는 조형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가 허트 시의원 사무실 등을 통해 알아보니 LA시 거리서비스국에서 철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형물들은 LA시가 올림픽 블러바드 재단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예산을 투입, 지

난 2011년에 설치됐다.

LA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등은 철거 사실을 인지한 후 조형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했다. 이후 LA시로부터 한인타운 조형물이 정부 소재 창고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이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조형물 뿐 아니다. 한인타운 역사 등이 담긴 안내판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본

지 확인 결과 올림픽 블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도산 안창호 선생 소개판, 한인타운의 역사 등을 알리는 안내판은 낙서 등으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또, 아시안 최초의 거주 하원의원이었던 알프레드 송(한국명 송호연)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 블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세워진 추모판도 현재 낙서로 도배됐다.

한인타운에 사는 크리스틴 조(33)씨는 "K팝 등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LA한인타운은 정반대 모습"이라며 "요즘 한류 때문에 이곳에 타인종이 많이 찾아오는데 LA시가 한인타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형물 관리 등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LA한인회, KYCC 등은 현재 시 정부에 조형물 재설치를 타진하고 있다. 문제는 한번 철거된 조형물을 다시 설치하는 건 예산이 재편성돼야 하므로 시 정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디렉터는 "LA시 예산이 투입됐어도 다울정 등은 한인 단체가 관리를 하지만 한인타운 조형물은 LA시 소관"이라며 "재설치부터 관리까지 하려면 상당한 비용 등이 필요하고 특히 조형물이 있던 곳은 차량 사고가 잦아서 교통국 등에서 재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기 기자

## 초과 수당 지급대상 확대

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달러로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 한인간 총격 살해... 피해자 유족에 200만불 배상

부사장이 대표 살해 후 자살  
가해자 재산 대상 소송 제기  
"정신적 피해·재정지원 호소"

2년 전 한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동료간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2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커머스 소재 유리병 제조업체 '퍼시픽 바이얼(Pacific Vial)'에서 발생했다. 당시 업체의 부사장이었던 오석환(당시 50세)씨는 업체 대표였던 로널드 이(당시 52세)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누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씨의 유가족은 피고 측이 오씨의 유산에서 배상금 200만 달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

합의했다.

숨진 이씨의 아내인 샌드라 이씨와 성인 자녀 이보준(BOO JUN LEE), 아이비 이(IVIE S. LEE)씨는 고인 오씨의 유산(estate)을 상대로 지난 2022년 9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씨의 재산 상속자이자 상속 집행대리인으로서 오씨의 아내 유소연씨와 무기명의 상속대상자들이 소송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6일 유소연씨는 법원에 남편인 오씨 소유의 부동산 2개에 대해 상속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 당일 이씨에게 6발의 총격을 가했다.

오씨는 최초 총격 후 이씨가 한동안 살아있었지만, 다시 총격을 가했고 이후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다고 소장은 전했다.

원고 측은 2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남편 및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이익에 대한 박탈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유족간의 법적 소송이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있게 보고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본지에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사망했다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인인 피해자의 생전 건강상태,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한 재정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망한 피고의 재산 수준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해된 이씨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씨는 이 업체에서 20여년간 함께 일해왔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특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열린문장로교회 새 리더십으로 '다가 올 40년 비전' 밝혀

버지니아 헌전에 위치한 한인 대형 교회 열린문장로교회가 지나온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40년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문장로교회는 특히 김용훈 목사를 중심으로 상호의존 교회의 비전 실현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이 정신을 새로 취임하는 김요셉 목사가 이어받아 더욱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33세의 나이에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용훈 목사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변화를 시도해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로 전환시켰다. 헌전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한인정통장로교회'에서 '열린문장로교회'로 개명하였으며 '은혜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비전이 선포됐다.

김용훈 목사는 목회 기간동안 이민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으며,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해 이민교회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열린문장로교회는 1세대와 2세대 간 '상호의존 교회'를 지향하며 한어권 당회와 영어권 당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 김용훈 목사 은혜의 공동체 김요셉 목사가 이어받아



하고 있다. 이를 묶는 연합 당회와 연합 공동의회를 통해 전반적 의견을 수렴한다. 담임목사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한어권 지도자들과 영어권 지도자들의 끈끈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었다.

김용훈 목사의 상호의존 교회 모델은 이미 교계뿐 아니라 신학계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피터 차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는 "열린문장로교회가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기초를 확실히 짚은 것뿐 아니라 세대간 차이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하여 모든 종족의 이민 교회에 대한 신선한 목회적 적용이 된다"고 인정했다.

김용훈 목사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를 위한 예배 사역을 강조해 왔으며 '오이코스'라는 소그룹 모임을 비롯,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훈련과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역에 집중해 커다란 부흥을 이뤘다.

열린문장로교회 성도들은 교회 비전 그대로 자신들의 교회는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열린문장로교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여러 사역을 진행해 왔으며 전세계 7유닛의 파송 선교사, 80 유닛의 협력 선교사, 13개 협력단체와 해외 및 국내 사역을 담당했다. 또한 아프간 난민 가정, 지역 난민 사역 등을 섬기고 있다.

김용훈 목사는 오는 28일 예정된 취임예배를 통해 33년간의 담임목사 직분을 내려놓는다. 김용훈 목사에 이어 김요셉 목사가 5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또다른 40년을 향하여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다.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앞둔 김요셉 목사는 "지난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40년을 향해 부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요셉 목사는 바이올라 대학교(B.A.)와 트리니티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으며, 현재 멤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중에 있다. 2001년 열린문교회에서 한어권 부교역자로 부임해 5년 간 사역한 바 있으며 이후 타 교회에서 담임목회 및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2011년 다시 열린문교회에서 17년 간 김용훈 목사와 함께 사역했다.

김용훈 목사는 지난 21일 담임목사로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은혜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며 "열린문 교회는, 때로는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며 걸어왔지만 그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걸어온 공동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은혜가 이끄는 자리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열매 가득 안고 서자는 말로 마지막 감사와 도전의 말씀을 나누었다.

김요셉 목사는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열린문장로교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여러 사역을 진행해 왔으며 전세계 7유닛의 파송 선교사, 80 유닛의 협력 선교사, 13개 협력단체와 해외 및 국내 사역을 담당했다. 또한 아프간 난민 가정, 지역 난민 사역 등을 섬기고 있다.

김요셉 목사는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열린문장로교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여러 사역을 진행해 왔으며 전세계 7유닛의 파송 선교사, 80 유닛의 협력 선교사, 13개 협력단체와 해외 및 국내 사역을 담당했다. 또한 아프간 난민 가정, 지역 난민 사역 등을 섬기고 있다.

김윤미 기자

## 육일기 벽화·일본해 지도 버젓이 전시

뉴욕 자연사박물관서 발견  
혹인 항의에는 기마상 철거

뉴욕 자연사박물관의 '육일기'(일본 전 범기)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도 최소 두 곳이 발견됐다.

23일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물관에는 지난 2014년께 논란이 일었던 2층 메인 로비 티켓부스 왼쪽 벽화엔 육일기는 물론 일본해 표기가 있는 상태다. 같은층 'Asian People' 역사관 안내판에도 일본해로 표기됐다.

벽화는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제26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묘사하며 그려졌다. 박물관은 본지에 민감한 주

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적절한 논리를 찾아 회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 보름가량 적절한 사람이 답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응답만 반복했다.

박물관 관계자 앤서니는 본지에 "시간 여행에 관한 벽화"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든 시간을 그의 전기에 기반해 미국 역사적 관점에서 그린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것으로 그의 생몰을 담은 그림"이라고 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적절히 답할 사람이 없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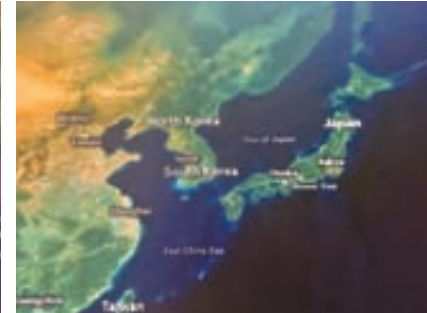
벽화는 1935년 윌리엄 앤드류 맥케이가 그린 것으로, 1905년 러일전쟁 직후 포츠머스 회담을 주선한 루스벨트를 표현했다. 한인에겐 식민지의 치욕

을 안긴 계기가 된 사건이지만, 루스벨트에게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다리를 놓은 업적이다.

2012년 보수 작업 후 일반에 공개된 육일기에도 북극과정서 그린 것인지 한인사회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박물관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본지에도 같은 입장으로 일관했다.

한국에선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가, 뉴욕일원에선 뉴욕한인학부모협회(회장 최윤희)가 박물관 측에 역사교육 자료를 전하거나 정치인을 동원해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벽화 수정은 요원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박물관 측은 타이 형태로 된 탓에 떼어내기 어렵다는 응답으로 일관했는데, 2022년 흑인 인권 운동의 여파로 루스벨트 대통령-인디언-흑인의 대형 기마상도 철거



뉴욕자연사박물관 2층 메인 로비 티켓 부스 왼쪽 벽화 속 육일기(사진 왼쪽), 뉴욕자연사박물관 2층 'ASIAN PEOPLE' 전시관 앞 아시아 지도, 일본해 표기가 눈에 띈다.(오른쪽)

한 것과 사뭇 다르다. 최 회장은 본지에 "육일기 방식같은 자유 침해 행위에 자유-시민을 키워드로 뉴욕 현지서 계속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주상원의원실 관계자는 "한인들이 이 문제를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계속 항의하면 정치인도 박물관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아

젠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톱다운'을 위한 '보텀업' 전략이다. 정치인 사무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nysenate.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일반 문의는 홈페이지(amnh.org/about/contact/contact-us-form)를 통하면 된다.

글=진=강민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결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결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결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결인 마이클 장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최고 ”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2501870; MD.2501870; NC.L-219065; VA.MC-7782; TX.2501870; PA.106923; SC.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점  
웨일리노레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저가 신차·로보택시’ 테슬라 10%대 ↑

“투자자들 희망의 불꽃 갖게 돼”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실적 악화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저가 신차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24일 낮 12시 기준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0.61% 오른 160.03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한때는 16.1%(167.9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주가 낙폭이 42%에 달했지만, 이날 반등하면서 연중 낙폭이 35%가량으로 줄었다.

테슬라는 전날 실적 보고서를 통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 5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은 5.5%로 1년 전(11.4%)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잉여현금흐름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매출과 주당순이익(EPS)(0.45달러)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보고서에서 “기존 공장 생산라인을 활용해 새롭고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한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콘퍼런스콜에서 “이전에 2025년 하반기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던 새 모델 출시를 앞

당겼다”며 이 신차 출시가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20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사이버캡’(CyberCab)으로 지칭하며 “에어비엔비(숙박공유 플랫폼)와 우버(차량 호출 플랫폼)의 결합 같은 것으로, 테슬라가 직접 차를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누군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고, 이미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해 유용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이르면 올해 말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 바이든, 안보지원·틱톡매각법안 서명

“우크라이나 지원 즉각 시작”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24일 오전 의회가 입법 절차를 마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과 중국계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 강제매각 내용을 담은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몇시간 내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탄약, 대포, 로켓 시스템, 장갑차 등을 위한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나는 운송이 바로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관련, “그것은 좀 더 쉽게 이뤄져야 했고, 빨리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에 우리는 미국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승리했다”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쳤으며 그것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관련, “그것은 좀 더 쉽게 이뤄져야 했고, 빨리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에 우리는 미국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승리했다”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쳤으며 그것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관련, “그것은 좀 더 쉽게 이뤄져야 했고, 빨리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에 우리는 미국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승리했다”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쳤으며 그것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은 탄도 미사일과 포탄을 보냈다. 중국은 부품과 러시아의 국방 생산을 늘리는 노후를 제공했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푸틴의 다음 행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나토의 5조(집단방위) 발동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임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나는 이스라엘이 이란 및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데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예산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 10억달러

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지체없이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이 법안에는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서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 법안을 제안해 협상했고, 동의했으며 그것은 이 법안에 포함됐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라면서 “다음 기회에 그것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지원 예산 법안에 포함된 틱톡 강제 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상원은 하원에 이어 전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1000억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고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최장 360일내에 강제 매각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의회는 애초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 처리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관련 내용은 빠졌다.

### TSMC “2026년 하반기 1.6나노 시작”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TSMC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인 Y.J. 미이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에서 열린 기술(technology)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A16’이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미이 COO는 “A16 기술을 통해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TSMC가 이날 언급한 ‘A16’ 기술은 1.6나노 공정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TSMC가 이 공정 로드맵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에 이어 2027년 1.4나노 공정을 통한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도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TSMC와 같지만, 1.6나노 공정은 없었다.

이에 미세공정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TSMC와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지만 가능한데, 인텔이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1.8나노는 두 회사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 앞선 공정이다. 인텔은 1.4나노 공정에서도 TSMC, 삼성과 비슷한 시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

### 멜라니아, 법정 간 트럼프 지원 등판

정치자금 모금 행사 참석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사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의 형사 재판과 맞물려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이다.

22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20일 플로리다 팜 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시작되기 직전 주말이었다.

공화당 성소수자 후원 모임인 ‘로그 캐빈 리퍼블리칸’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특히 주목을 끈 건 멜라니아 여사의 의상이었다.

최근 선보인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과는 달리 각이 잡힌 ‘올블랙’ 바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6일 마라라고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는 꽃무늬의 보라빛 점프수트를 선보였다.

지난 달 19일 플로리다 경선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커다란 난초

가 그려진 흰색 셔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할 당시에도 검정 대신 회색 코트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외신들은 멜라니아 여사의 이날 패션을 22일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톰리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전횡 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재판에 섰다.

NYT는 ‘의상의 심리학’으로 볼 때

검은색은 진지함·과묵·애도 등을 의미한다며 “팜 비치 파티에서 기대할 법한 것과는 살짝 다르다”고 짚었다.

NYT는 또 “색상 외에도 엄격히 제한되고 구조화된 수트는 그가 플로리다에서 자주 즐겨 입던 차림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올블랙 패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겪는 ‘뉴욕의 행사’(형사 재판)와는 어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메시지도 올렸다. 그는 “우리는 미래와 앞에 놓인 도전을 바라보면서, 자유와 정의, 애국심의 원칙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동 목표로 뭉칠 때, 우리는 더 밝고 촉망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멜라니아 여사는 다음 달 미국 어머니의 날(5월12일)을 앞두고 목걸이 판매에 나섰다. 의회전문매체 힘이 전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모든 어머니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목걸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다만 멜라니아 여사가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 다운 회계법인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무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PR. 25th - MAY 2nd, 2024**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바나나맛 우유**  
**6.8 FL OZ X 24 EA/PKG**

**FREE GIFT!**  
**바나나맛우유 콜드컵**  
**WHILE SUPPLIES LAST**



~~Reg. \$24.99~~ **LIMIT 2**  
**\$1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 트럼프 재선 땀 한·미 FTA 손볼 것

ASG 에릭 알트바흐 지적  
“세계에 안전한 국가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손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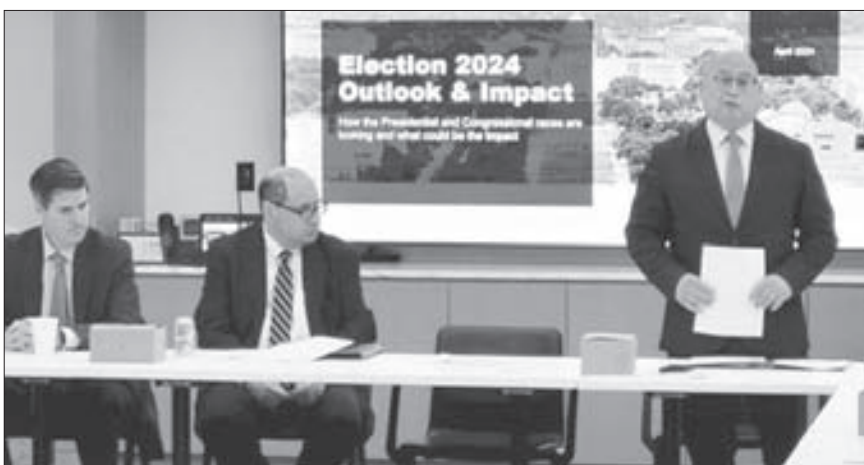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ASG)의 에릭 알트바흐 파트너는 지난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알트바흐 파트너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밀어붙인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로 묘사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과 무역을 다시

문제 삼는 게 약간 어색할 수 있겠지만 FTA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면서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우 한국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연방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단은 23~25일 하와이에서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분담금 협상에 들어간다.

알트바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 구축에 힘쓴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이같은 사적 외교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과 과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ASG)의 에릭 알트바흐(오른쪽) 파트너가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거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ASG 선임고문은

“(트럼프 재집권시) 어느 나라도 자기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GS의 모회사 격인 텐턴스 글로벌 어드바이저(DGA)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 존 러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 정책을 뒤집은 사례를 들어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DGA 소속 파트너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 권력을 잡으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들이 IRA에 명시된 청정에너지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샌더 루리 파트너는 다만 반도체와 학업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IRA와는 달리 상원 통과 당시 의원 100명 중 60명이 넘게 찬성하는 등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지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1면 ‘콜비’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별’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뒤쳐진 핵군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는 NCG를 통한 안보를 약속했는데.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협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연전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동맹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대신 한국이 G7 가입을

- 한국이 G7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G7에는 북대서양과 유럽 국가가 너무 많다. 아시아가 (미국 안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23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회담했다. [AP=연합뉴스]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간 안보 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영·호주 간

안보동맹)는 실효성이 없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쿼드 등의 다자 회의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게 낫다.”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과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군사력을 강조하지만 자신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 볼턴은 호전적 인물”이라고 했다. 볼턴이 주장했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한·미에 대한 핵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죽음이 두려워 자살하는 것’과 같다”며 “망상(delusion)”이라고 비판했다.

- 북·미 대화가 재개될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비핵화에만 전념하는 것도 허구다. 북한과 협상하더라도 북한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알고,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자신이 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다만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은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역시 확실하다”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하 특파원**

## ‘반미’로 북한과 손잡은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폐쇄

중남미의 니카라과가 제정난을 이유로 서울에 있는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하면서도 평양에는 대사관을 새로 내기로 해 니카라과와 북한이 ‘반미 연대’로 밀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며 “이에 따라 체니아루스 아르세 제페다 주한 대사의 임명도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폐쇄는 외교 관계를 끊는 단교 조치는 아니다. 외교부는 “니카라과 측의 비상주 대사관 겸임 대사 체제를 통해 한·니카라과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에 있는 주일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겸임

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의 결정이 관심을 끈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평양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대사관을 각기 다시 열기로 합의했고,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는 지난해 말 주북 대사에 니카라과 좌파 세력의 구심점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출신 명망가를 내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악화로 독일 대사관, 미국 영사관(텍사스·캘리포니아·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 멕시코(타파츨라)·영국·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의 해외 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인구 661만 명의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함께 대표적

반미 국가로 꼽힌다. 특히 오르테가는 2021년 야권 탄압으로 5선 가도에 오른 인물로, 종신 집권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2017년 최룡해 국무부 위원장을 오르테가의 네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보냈고, 지난해 7월 산디니스타 혁명 44주기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형제의 나라’ 쿠바가 지난 2월 한국과 전격 수교한 것이 ‘또



김정은 오르테가

다른 형제 나라’ 니카라과를 더욱 끌어당기도록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니카라과 관계 개선은 1970~80년대 이뤄진 군사·인적 교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을 주축으로 한 ‘반미 권위주의 사슬’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한편 김정은이 이란에 경제 사절단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매체는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건 2019년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처음이다. ‘반미 연대’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한편, 러시아에 이어 중동에서도 ‘어둠의 무

기상’을 자처하며 무기 세일즈에 나선 단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국방경제사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NK(북한)-방산’ 세일즈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으로서는 이란-이스라엘 대립 격화를 호재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또 이란과의 군사 협력을 다져 팔레스타인 하마스, 물론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등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을 잠재적 고객으로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란 루트를 뚫어 군사 협력을 한 뒤 이란이 우방국에 무기·군수품을 나눠주도록 함으로써 ‘저항의 축’에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란과 협조만 잘되면 김정은은 배후에서 중동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 덕 좀 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 이벤트 1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 20

## % 할인

### 이벤트 2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Free G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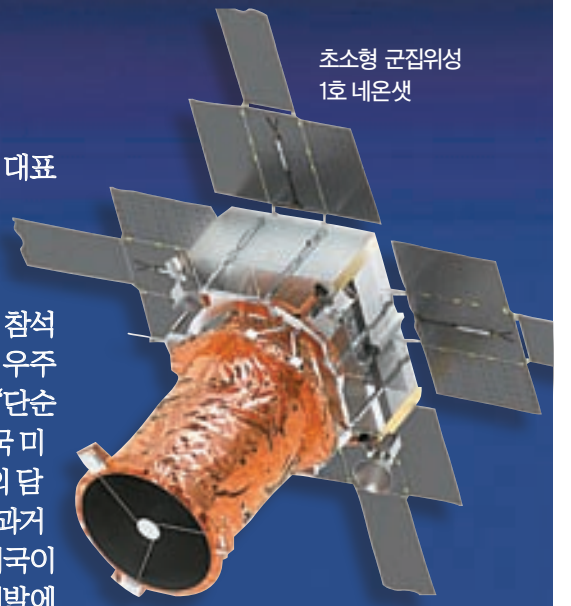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K-우주경제' 새 시대 진입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네온셋

3년내 위성 10기 추가, 군집운용 한반도 정밀촬영, 경제·안보활동

'한국판 NASA' 첫 지휘부 운영빈·존 리·노경원 확정

민간·정부·학계가 공동 개발한 국내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24일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 양산형 초소형 위성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의 초대 수장에 운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내정되는 등 다음 달 27일 출범을 앞둔 우주청 수뇌부의 진용도 갖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이하 위성)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전 7시32분(현지시각 오전 10시32분) 뉴질랜드 마히아에서 발사된 위성은 약 50분 만인 8시22분에 발사체 로켓과 분리됐고, 이후 지구를 두 바퀴 돌았다.

이번 발사에는 'B.T.S(Beginning Of The Swarm, 군집의 시작)'라는 임무명이 붙었다. 위성 이름은 '네온셋(NEONSAT)'으로 주요 임무는 한반도 지역 고해상도 이미징 촬영, 자연재해 경보, 안보 목적 등이다. 위성은 매일 3회 이상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수준의 고해상도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발사한 위성 1호에 이어 2026~2027년 사이 후속 10기를 추가로 발사해 총 11기를 군집위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성 발사를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가 본격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위성 제작, 발사체 산업에 진출하려면 초기 수요 창출이 중요한데 위성 11기를 발사하면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대형 위성보다 용도가 특화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위성 관련 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한다. 이번 위성 발사는 우주 개발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뉴(New)스페이스'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정부는 2호기부터는 해외업체에 맡기지 않고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직접 위성을

출 계획이다. 발사체 시장 활성화 차원에 서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이끌 고위직 3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청장에 운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내정됐다.

각각 연구 정책 수립(노경원)-우주 핵심기술 개발(운영빈)-우주산업 활용(존 리) 등의 분야에서 잔뼈가 굵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주청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윤 청장은 로켓 추진체 분야의 대표 연구자다. 차세대 로켓추진연구센터를 이끌면서 나로호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단순한 정부 조직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미·소 간 우주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이 1958년 NASA를 발족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우주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우리도 우주청 설립과 더불어 우주 개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본부장은 우주 분야 전문가다. 미국 이민 1.5세대로, 92년부터 NASA에서 근무를 시작해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위성 통합관리본부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내정된 운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NASA 본부장, 차장에 내정된 노경원 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부터). [연합뉴스]

## 2027년까지 초소형 군집위성 11기 발사

- 주요 임무 한반도 상시 촬영
- 긴급 임무 재난재해 발생 시 관심 지역 촬영
- 부가 임무 해외 촬영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초기운영시)

지상국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정상운영시)

### 초소형 군집위성

- 무게 100kg 미만
- 크기 발사시 0.6×0.6×1.2m  
궤도상 2.0×1.8×1.2m
- 구성 위성본체 + 탑재체  
(흑백 1m, 컬러 4m급 촬영 가능)
- 운용수명 3년
- 계획 2~6호 2026년 발사 예정  
7~11호 2027년 발사 예정

고도 500km 태양동기궤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로켓랩 유튜브 캡처=뉴스1]

장, 수석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성 실장은 "NASA와 백악관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국제적 고위급 네트워크로 프로젝트 중심인 임무 본부를 이끌어 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노 차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책 전문가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 직급으로 1급(차관보)인 존 리 본부장의 연봉은 차관급인 윤 청장(1억 4000만원대)보다 1억 이상 많은 2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공무원 중 가장 많다. 차관급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기존 공무원 연봉 체계를 따라야 하지만, 우주청 내 1급부터는 특별법이 적용돼 연봉 상한선이 없다.

인재 영입을 위한 '허드 없애기' 차원에서 청장을 제외하면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는데, 존 리 본부장이 그 사례다. 주식 배지 신탁 의무도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와 해외파 인재를 영입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제약을 없애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주청의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하되,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7200억원이 편성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비전을 골자로 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주 개발에는 천문학적 인자금이 소요되지만, 첨단기술 확보와 국내 경제력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국가 안보 및 국제적 협력의 관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현일훈·김철웅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환주당시 미 전액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예년대입 **703-354-1515**  
 2층소매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4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돌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체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산소와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침대  
 산림욕 효과  
 슬림핏질 찜질효과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속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천연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습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런티 지정 대리점

**월단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발열판 히터 장착

\$5,800 **\$3,500 빅빅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이영양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친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7기기를 채우고 피톤치드 7세팅~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 Q**

골수척사(발목) 수직 자외선 + DocuQ

발목 펌프 자동운동기

발목 펌프 자동운동기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에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꺼풀, 이물감, 부연사,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열힐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슬드 라이프**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공급/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정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 온수매트

# 대학병원 휴진 확산...의정갈등 다시 격화

서울대·아산 이어 연대 "30일 휴진" 지방대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동참 정부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유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도 주 1회 휴진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휴진을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30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만큼 물리적으로 예약된 진료 일정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휴진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어 일제히 휴진은 어려울 수 있어도 부분 휴진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날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일에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하루 동안 진료·수술을 가급적 중단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빅5 병원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서울아산병원이 전날 휴진을 결정한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소속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왕원병원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라며 사실상 주 1회 휴진을 권고했다. 가톨릭의대 김성근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중 가톨릭대 산하 8개 병원별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이날까지 충남대·충북대·원광대·계명대·경상대 등의 의대 교수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논문 공고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주호 사회부총리(오른쪽)가 24일 한국교육사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한다.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대형 병원의 휴진 결정과 관련해서는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 기존 비상진료대책 중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 환자들을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대형 병원에서는 진료 연기와 수술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외과 계열의 한 교수는 "외과는 현재 수술을 이미 절반 정도로 줄였다. 30일에는 급한 암 수술 위주로 10% 이내로 줄이려 한다. 3, 4건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에 일단 휴진한 이후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다음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병원 측은 주 1회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장은 휴진 배경에 대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 시간 근무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경 서울대 비대위 언론 대응팀장은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직과 함께 교수 사직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왔는데,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필수외과에 속한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시작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선 앞서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8월 31일 병원을 떠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가톨릭대의대 소속 7곳 병원은 26일 비대위가 모은 사직서 수백 장을 학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전날 전국 40곳 중 20곳 소속 교수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도 25일 이후 사직에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워가며 환자들을 지키는 분들이 의대 교수들"이라며 "이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가 정부가 알아 달라"고 했다. 또 "다가오는 5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을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정부는 25일 이후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절차·형식·내용을 갖춰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가 많지 않고, 대학 본부가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다는 이유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

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사 추계 근거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재승 위원장은 "근거 마련에 8~12개월이 걸린다.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제안을 일축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5일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섯 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논의 등 기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수연·문상혁 기자

## 이주호 "의대 입시안,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달라"

40개 의대 운영 총장들과 간담회 "학생·교수 복귀 위해 적극 설득을"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6개

국교육사설안전원에서 이들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 총장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 후 처음 열렸다. 자율화와 관련, 이 부총리는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과 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 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

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장들께서도 학생과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을 향해 "수업 거부, 동맹 휴학이 계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

로 여러분"이라며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이 방향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삼익쇼핑 롯데 렌트 센터(Man)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인타운(mar)과 찰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http://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이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 고품질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1차 4/16-4/26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6/18~6/28 **고품질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트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질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4~10/25 **오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질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질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5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사바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업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경주 목요일  
 워포사원, 플로세움수, 파타야 야시장, 산호성,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태극동산물

**푸켓**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경주 수요일  
 팜야만 해양관광공원, 아프로디데소,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경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마피코, 호치민명묘, 생일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경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피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경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후제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행곡, 화련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국립공원, 자유편거리

**싱가폴**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경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더슨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아터문, 센토사, 실로소버티

**메모리얼 데이 특선**

**천성, 몬트리올 퀘벡, 레이크조지**  
 3박4일 5/24~5/27 \$899

**통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방문, 허드슨아드, 스테이크 특식  
 1박2일 5/26~5/27 \$450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특선**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출발**

**성극 대니엘**

**\$199**

5/16,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동부 명소 방문 특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4일 \$95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한강 위에 호텔·오피스... 서울시 “이용객 1000만 시대 열것”

오세훈, 한강 수상 활성화 계획 발표  
2400명 수용 푸드코트존도 건설  
잠실엔 선박 1000척 마리나 추진

물 위에서 일하고 여러 나라 다양한 음식도 즐긴다. 수상 호텔에서 숙박하고 유람선에 올라 석양을 감상한다. 앞으로 한강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사진) 시장은 2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 등 크게 3가지 컨셉트로 구성했다.

오 시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한강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수상오피스는 연면적 5000㎡에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업무무를 보고 휴식도 취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한강에는 조감도처럼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사진 서울시]



할 수 있도록 수상 공간을 활용한 복합 공간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플로팅 오피스 로테르담’과 비슷한 형태로 짓는다. 용산구 이촌동, 성동구 성수동 등 접근성과 이용수요가 양호한 지역에 조성할 방침이다. 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엔 숙박·여가·컨벤션 기능을 갖춘 수상 호텔을 만든다. 연

면적 1만㎡에 4층 규모(객실 200실)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연내 타당성 조사에 돌입, 2025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뒤 2026년 착공한다. 수상호텔·수상오피스는 모두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시설이다. 한강대교 북단 다리에 있는 직녀카페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한강과 서울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숙박시설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한강에서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도 조성한다. 15~20개 음식 판매 부스가 들어서고, 2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연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 착공한다. 한강의 여가 기능도 강화한다.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만들고, 현재

130선석기량인 한강 선박 계류시설은 1000선석 규모로 확대한다. 이촌한강공원에 부유식 수영장·옥상전망대·수상산책길을 갖춘 전시 공간인 한강아트피어를 조성한다. 한강아트피어와 잠실 마리나는 모두 2026년 개장한다. 또 10월엔 마포대교 남단에 대형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조성하고, 2026년 여의도에 서울항이 개항한다. 더불어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로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시민 1000만명(현재 90만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총예산 550억원 중 민간에서 3135억원을 투자·유치하고 서울시 재정 2366억원을 투입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미 민간 제안 공고를 한 마리나 시설은 10여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문화철 기자

## 구로구청, 공원 지하주차장 강행... 주민 “밀실 행정” 거센 반발

(구로거리공원)

주민 “녹지 훼손, 교통사고 우려”  
구청 “일부 반대 있지만 추진”

서울 구로구가 구로거리공원(구로동 50번지) 지하에 건설 예정인 공영주차장을 놓고 구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건설을 강행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녹지 공간이 훼손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24일 “지난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

하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주민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 주차장 신축의 필요성과 위치·규모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2018년부터 거리공원 지하에 연면적 7313㎡, 총 202면(지하 1층 98면·지하 2층 104면)의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상 사업비는 시·구 예산 등 약 230억원이다. 구로구는 “공원 일대 주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이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는 3200여 대에 이른다.

문제는 주민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조성된 지 40년 넘는 구로거리공원은 이 지역 주민에게 사실상 유일한 쉼터이자 녹지공간이다. 길이 1.24km의 산책로를 따라 수령 30~40년 인 빛나무 470여 그루가 늘어서 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원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구로거리공원은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심(주간선도로)에 있다. 주민들은 너른 길 한복판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만큼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막상 주차장을 지어놓아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차 수요가 많은 인근 먹자골목이나 주거 밀집구역은 사업부지와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구로구가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반감도 만만치 않다. 지

난해 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하주차장 조성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로5동 주민인 이해경씨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소통 노력의 전부”라며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밀실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관계자는 “일부 주민 반대가 있지만, 주차장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수기 기자

## “한국의 기적 멈출까 안타깝다”... 떠날 때까지 나라 걱정

삶과 추억 노재봉 전 총리

“기적의 대한민국이 자칫 멈출까 봐 안타깝다.”

23일 별세한 노재봉(사진) 전 국무총리가 올해 초 제자들과의 공부 모임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년 전 혈액암 판정을 받고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세가 악화해 23일 밤 서울성모병원에서 타계했다. 노 전 총리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혈액 투석치료를 받는 중에도 “윤석열 정부가 건설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



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많이 했다고 한다. 노 전 총리가 몸담았던 노태우 정부는 80년대 말~90년대 초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민주화 물결과 소련 해체의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노 전 총리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시절 제자이자 노태우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함께 일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통화에서 “뛰어난 안목과 식견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중추가 되신 분”이라고 했다. 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브리검영대를 거쳐 뉴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토크빌(1805~1859)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75년 『시민민주주의』라는 저서로 토크빌 사상을 국내에 소개했다. 200여년 전 민주주의가 태동할 즈음에 활약한 토크빌은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 노재봉”은 정치권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양김’(김영삼·김대중)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이끌던 이철승 신민당 대표에게 “중



1991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당·정 회의에 참석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도통합론”을 조언했고,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에는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면서 직선제 개헌이 담긴 6·29 선언문 작성에도 참여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에 대통령실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1990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소 정상회담에서 현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노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수교원칙을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1월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생 강경대 사망사건과 수서 택지 특별분양 사건 등이 터지며 4개월 만에 총리직을 내려놨다.

노 전 총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국자유회의’라는 보수주의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성환 전 경기도 교수 등이 멤버다. 토론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 문제를 짚어낸 『정치학적 대화』(2015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2018년)을 펴냈다.

김효성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윤상현 “여당 영남 의원, 수도권 혐지 찾아 지옥 체험을”

화제의 당선인 **국민의힘 윤상현**

보수 정당의 수도권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8차례 총선에서 두 차례(15·18대)만 서울·경기·인천에서 승리했다.

기록적 참패를 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수도권 후보 122명 중 19명(15.6%)만 살아 돌아왔다.

그중 한 명인 윤상현(62·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참패는 예견된 참패다. 지난 4년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당 핵심의 영남 주류 의원은 수도권의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싸움에 대한 감(感)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대 총마? 지금은 반성·사죄의 시간”  
윤 의원은 “보수진영 최초 수도권 5연승” 기록을 썼다.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그는 18대 첫 당선 이후 두 차례(20·21대)의 무소속 생활을 포함해 같은 지역구에서 다섯 번 계속 이겼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첫 당선자 총회 때 ‘혁신형 비대위’ 필요성을 맨 처음 공개 주장하고, 18일과 22일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여는 등 당내 자성론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인터뷰에서 ‘반성·사죄·혁신’을 강조한 윤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도 “지금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 쓴소리를 도맡아 이유가 뭔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를 주장했지만 당 핵심에 계신 분들이 그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위기가 위기임을 못 느끼는 게 우리 당의 고질적 위기다. 87년 체제 이후 집권당 최대 참패를 겪었는데 지금도 좋은 게 좋은 거란 분위기가.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다. 패배가 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게 비겁했다.”

“영남 중심의 지도부 구성이 패착이었다. 우리 당 수도권 성적을 보자, 서울 48개 지역구 중 11개, 인천 14개 중 2개, 경기도 60개 중에 6개, 여기에 대정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영남 의원을 맞출 수 없다는 거다. 그분들에게 ‘수도권 감수성’이 없는 건 존재적 한계에 가깝다. 아무리 우리가 절절하게 이야기해도 영남 지역구에서 듣고 느끼는 게 다르니까. 수도권의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



실한 싸움을 겪어보지 못하니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

“영남-수도권 간 인식 차를 극복할 묘안 이라면.

“영남에 있는 의원들 전부 수도권 지역구에 1대1 자매결연 맺고 현장을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과거 영호남 지역구 자매결연을 추진한 적은 있는데, 그보다 지금 수도권이 더 문제다. 당선 인사를 다니는 나도 ‘너희 정신 차려라’ ‘너무 못한다’는 말을 면전에서 듣는다. 영남 의원들이 이승환(서울 중랑을), 박상

수(인천 서구갑), 손범규(인천 남동갑), 박진호(서울 김포갑) 이런 혐지 원외조직위원장들과 낙선 인사를 같이 다니면서 지옥을 체험해보면 사나운 수도권 민심을 좀 깨닫지 않겠나.”

“영남 책임론이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감수성이 약하다는 체질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영남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영남은 보수의 심장이다. 무에서 유를, 가난에서 풍요를 만드는 박정희 정신의 산실이다. 그 정신이 심장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팔다리로 뻗어 펼쳐 나가기로 모두가 바란다. 심장이 피를 뿜지만 싸움은 팔다리가 하지 않나. 수도권을 모르는 당은 미래가 없다.”

국민의힘은 22일 당선자 총회에서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윤 의원은 “당 대표,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공천 핵심을 수사하듯이 쫓아서 왜 그때 공천을 그렇게 했는지, 여론조사는 어땠는지 미공개 정보를 캐내 만천하에 내보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두 번 다시 공천 장난을 못 친다”고 했다.

“한동훈 총선 때 민심이 더 앞섰어야”

“총선 참패는 누구 책임이 크다고 보나. 대통령과 정부가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줬다. 하지만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략과 메시지에서 실패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몰랐고, 참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3월 말쯤 한 전 위원장에게 ‘유승민 전 의원을 선대위에 등용시키자’고 제안했는데 결국 안 됐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울 게 아니라, 더 바짝 앞드려 민심에 사죄해야 했다. 내가 박근혜 정부 때 지방선거를 당 사무총장으로 지휘하며 ‘인 피켓시위’ 사죄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라도 해야 했다.”

“당정 관계에 있어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은 불통이라고 하기 어렵다. 굳이 표현하자면 왕고집에 가깝다. 고집이 센데, 한번 받아들이면 딱 바뀌고 그걸 뒤늦게라도 반드시 상대방에 알려주는 유연한 사람이다. 통이 크신 분이요. 역대 대통령 중이 정도 소통된 사람도 없었다. (과거) 나도 박근혜 대통령 전 화번호를 몰랐다.”

심세롬 기자

# “추미애도 웃네 말 들어... 그간 악마화 프레임 간헐구나”

화제의 당선인 **민주당 추미애**

4·10 총선 경기 하남갑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정권심판론 같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무게를 느낀 선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섯 차례 당선됐던 서울 광진구를 떠나 하남갑에서 출마한 추 당선인은 친윤 초선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개표 내내 엇치락뒤치락 대결을 벌인 끝에 총선 다음날 새벽 4시쯤에야 당선 이 확정됐다. 1199표(1.17% 포인트) 차 신승이었다.

그는 유세 기간 지역 유권자들이 ‘추미애도 웃네? TV로 보던 것보다 웃는 표정이 예쁘다’고 말할 일화를 소개하며 “그간 악마화 프레임에 갇혀 내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조건 완화 검토해 봐야”

민주당이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을 차지한 데 대해 추 당선인은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바로잡아 달라”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먹고 살기 힘들다, 국회가 뭐가 해달

라는 요구가 민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론된 야당 출신 총리 기용설에 대해 추 당선인은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는데, 야당이 무리하게 정쟁을 벌이니 이걸 막아다오’ 이런 주문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방탄 총리가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다들 겁먹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 요구대로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을 정하셨던 분”이라며 “국정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한테 맞장구를 쳐줄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된 추 당선인은 이미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석 의원과 5선 김태년·정성호 의원이 경쟁자로 꼽힌다. 추 당선인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으니, 국회가 강력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정부 역할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온 것을 통과시켜 주는 의사봉을 쥔 근엄한 의장이 아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과의 인터뷰는 23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채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주거조작 의혹)를 핵심 과제로 삼

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

“야당의 단독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이미 국민적 임계점을 넘었다. 누적된 분노가 방아쇠를 당기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장이 되면 야당 편만 들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국민 중심으로 보면서 정치해 왔고, 단순히 소속 당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김무성 전 의원을 포함한 비박계 여당 의원을 설득한 경험도 있다.”

“장관 시절 야당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답했다. 여당과 소통엔 문제가 없겠다.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누리면서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정말 그런 소설이다’ 하는 정도가 강한 발언인가. 언론의 악마화이고 무리한 프레임이다.”

“보수의 어머니’란 평가도 있다. ‘추미애-윤(윤석열)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

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사를 6단계 뛰어넘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거기서 더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추미애가 장관이라 힘이 더 강하다고 했는데, 내게 수사권이라도 있었다. 윤석열(대통령)은 발탁하신 대통령이 키워주신 거고, 언론이 내가 검찰총장을 쫓아낸다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건 문 전 대통령”

“언론개혁도 주장한다. 언론재갈법이라 불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할 건가.

“언론도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지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이다. 권력 감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언론이 비판을 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놓은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다. 내가 의장이 된다면 다양성을 살리겠다. 상호 연대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제도화해야 한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양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에 의해’는 불필요

‘~에 기초해’ ‘~로 말미암아’의 뜻으로 쓰이는 ‘~에 의해’가 있다. 그러나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집어넣거나 다른 말이 어울리는 자리에 마구 사용하는 등 ‘~에 의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에 의(依)해’를 남용하게 된 것은 일본어에서 자주 나오는 ‘~니오테(~に依って)’ 또는 영어 수동태 문장의 ‘by~’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친구들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다” “적절한 교육에 의해 높은 소질을 키울 수 있다”에서는 각각 ‘친구들에게’ ‘교육으로’가, “자연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광고에 의해 자신의 욕구와 관계없는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에서는 각각 ‘목적에 따라’ ‘광고 때문에’가 어울린다. 더 큰 문제는 ‘~에 의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영어의 ‘by’를 단순히 ‘~에 의해’로 번역해 우리말 체계와 다른 괴동문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The book was written by Dr. Kim”을 대부분 “그 책은 김박사에 의해 쓰였다”로 번역한다. 그러나 능동문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말로는 “김박사가 그 책을 썼다”가 정상적 표현이다.

이러다 보니 요즘은 ‘~에 의해’를 사용한 괴동문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 이동은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 등이 그런 예다. 능동문인 “교육이 사회적 지위 이동을 좌우한다”가 자연스럽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프리즘

저무는 짠 물건의 시대



안유회  
LA중앙일보  
사회부장·국장

로 인플레이션은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 여전히 불안한 중동 정세는 개스값을 흔들고 떨어질 줄 모르는 부동산은 렌트비를 떠받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99센트 온리의 파산은 짠 물건이 사라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첫 번째 확증일 수 있다. 짠 물건이 사라지면 인플레이션은 가계를 더 조일 것이다. NBC4 방송의 현장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딸기 한 팩, 맥론, 감자 3파운드, 토티야 한 팩, 우유 1갤런의 가격을 비교할 때 99센트 온리는 11.39달러, 알프스는 17.96달러였다. 제일 짠 가격대가 사라지면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저소득층이 맥도널드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다. 분석도 나왔다. 맥도널드의 이언 보든 최고 재무책임자가 투자자 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금은 어려운 소비자 환경이다. 많은 소비자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줄어드는 저축을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맥도널드에서 버거는 예사로 8달러를 넘고 세트 메뉴는 10달러를 넘는다. 꼭 맥도널드만은

아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 보면 부당 없이 먹던 음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싼 것이 사라지는 현상은 중산층 제품으로도 이미 번졌다. 100온스에서 92온스로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 세제, 4분의 1온스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 비누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쓸 만한데 짠 물건의 시대는 다시 돌아올까. 연방정부와 함께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 공급망을 다시 만들려는 노력이 완결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산 소비는 확실히 줄었다. 1인당 수입품 지출액의 25%를 차지했던 중국산은 16.6%로 줄었다. 하지만 전 세계 물가를 안정시키던 중국의 역할을 멕시코와 베트남, 태국 등이 대체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태무와 쉬인이 중국산 저가품의 새로운 상징이 된 것은 이것과 맞물린다. 두 회사의 제품이 이토록 인기를 끄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편론 수입사가 팔던 방식이 중국 회사가 직접 파는, 중국 제품이 도매에서 소매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공급망 재편과 인플레이션 시대의 합작품이다.

“지금 경기는 좋다. 차와 집을 살 일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다. 하긴 지금 차와 집만 짠 것이 없는 상품이 또 있을까.

잠망경

레드 헬리콥터의 친절



서량  
시인·정신과 의사

사실을 깨닫는다. 그 장난감 헬리콥터가 어른이 된 그의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 그를 수직 상승하게 하는 효험을 발휘한다.

‘친절한(kind)’이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한다. 이전 독일어로 가족이라는 뜻이었다. 영어의 ‘유치원(kindergarten)’은 스펠링 하나 바꾸지 않고 쓰는 현대 독일어로 ‘어린이들 정원’이라는 의미다. 병원 입원 수술 시에 무심코 기재하는 ‘친족(next of kin)’의 ‘kin’도 가족을 뜻한다.

그러나 친절(親切)이라는 한자어를 잘 살펴볼기를 바란다. ‘친할’ 親, ‘끊을’ 切. 친하게 절단하니? ‘친절’의 어원은 일본 막부시절, 성주들끼리 전쟁이 잦았던 시절로 돌아간다. 당시 사무라이

들은 전쟁에 젔을 때 할복자살을 함으로써 패배의 책임을 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죽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심복이나 동료가 칼로 손목에 목을 치는 행위를 친절(親切)이라 불렀다. (강원신문 2012년 9월 29일) ‘일곱 七’, ‘칼 刀’. 친절에는 칼 일곱 개가 숨어있다.

제임스는 금전 위주의 비인간적 태도를 경계한다. 호의의 마음 가짐이 친절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상대의 마인드셋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가식적인 친절은 통하지 않는다. 날조된 친절은 위조지폐처럼 금방 들끓이 나는 법이거늘, 날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 ‘말로 천 냥 빚 갚는다’ 하지 않았던가.

정신치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숙련된 치료사들은 환자들에게 호감 어린 친절을 보여주는 심성을 불철주야로 연마하고 있다. 제임스 이가 주창하는 호의와 친절과 기쁨에 각도를 맞추는 수많은 CEO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신 상담사가 환자들에게 호의와 친절과 열정을 부단하게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more ▶ [www.sk-pest.com](http://www.sk-pest.com)

**민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 skpmva@gmail.com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 '국세청의 신문사 조사' 방송 생중계, 괴벨스 선전전 떠올라

**이문열, 시대를 쓰다(2)**  
**2001년 DJ 정부 언론사 세무조사**

희망과 예측을 적당히 버무린 결과일까. 과거의 내가 매사에 비판적이고 엄격한 편이었다면 요즘의 나는 좀 너그러워지고 덜 엄격해진 느낌이다. 혼자 앙앙불락(怏怏不樂)한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러니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나빠져 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나 싶기도 하다. 이상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여당도 이상하고, 야당도 이상하다. 야당이 더 걱정되기는 하지만. 옛날 같으면 화가 나서 고함이라도 질렀을 텐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2001년에 나는 달랐다. 그해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여론을 갈가리 찢어냈다고 생각했다. 내가 DJ를 지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1997년 DJ가 대통령이 돼도 무방하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던 그가 대통령이 돼도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지역감정 해소에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아주 강한 정치성, 나쁘게 말하면 역압의 의도성 같은 것이 표출됐다고 느꼈다. 내가 대안 없는 부정과 부인이 유일한 존립 목적이라고 규정한 네거티브 세력이 공고하게 언론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해 전인 2000년 2월 중앙일보 칼럼 '홍위병을 돌아보며'에서 걱정했던 대로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하는 모양새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언론개혁을 요구해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합심해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의 이런 주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 등을 조사하겠다고 공표했다. 23개 언론사와 계열기업 및 대주주에 대해 4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여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 정도인 언론사들에 가해진, 단일 업종 사상 최대 액수의 세금 추징이었다고 들었다. 검찰에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가 8월에 나란히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에 차례로 석방된 점



2001년 책 장례식 후 100일 만인 2002년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한 이문열씨.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문학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 정권과 시민단체 '언론개혁' 결탁 방송 3사 빠지고 보수 신문사 타깃 중앙일보에 '홍위병 돌아보며' 칼럼 좌파 "왜곡된 사고의 지식인" 날세워

도 순수한 언론개혁 차원이라는 점을 의심하게 했다. 공평하게 두 달씩 따끔하게 손 봐줬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방송 3사는 용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비껴났다.

그해 6월 29일 TV를 켜더니 방송 3사가 일제히 국세청의 6개 신문사 검찰 고발 발표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난리라고 난 줄 알았다. 조선일보에서 원고 청탁을 하길래 마침 써줬던 원고를 새로 쓰다시피 해서 보냈다. 조선일보 7월 2일자로 실린 '신문 없는 정부 원하냐' 칼럼이다.

나는 신문사들의 불법 행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국세청 조사 내용이 시시콜콜 생중계로 공개되는 것부터 문제라고 봤다. '방송사는 왜 고발 대상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방송사들이 황급하게 생중계를 끝내는 듯한 장면도 석연치 않았다. 괴벨스의 선전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덩치 큰 방송사들은 검찰 고발에서 제외하

면서 정권과 결고립된 보수 신문사들에 집중해 버리는 바람에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의 순수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당시만 해도 세무조사는 민보인 기업에 대한 처벌 또는 보복 성격이 짙었다. 역으로 수출 많이 한 기업은 정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관행도 있었다.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 개혁의 일환이냐 아니면 언론탄압이나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가 뒤엎혀 대립했다. 언론계도 분열돼 방송과 신문이, 신문사끼리도 서로 갈등했다. 나도 거기 끼여든 것이지만 교수·작가 등의 지면을 통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훗날 한 언론학자는 그해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한국사회 전체를 전방 양면으로 가르는 대규모 담론투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양승목,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2004)

좌파 문인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는 7월 25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문학인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특정 언론들이 (...) 왜곡된 사고의 지식인들을 지면에 동원하여 '홍위병' '악령' 운운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를 우회 비판한 것이다. 정작 작가회의는 그해 11월 내 책이 장례식 수난을 당할 때 입 한번 뻗기지 않았다.

## 언론·학자·문단까지 뒤엎혀 대립 나라 분열되고, 여론 돌로 찢어져 결국은 권력 힘 빌린 의도적 억압 '조세정의 실현' 순수함과 거리

이른바 '곡학아세(曲學阿世)' 발언으로 논란을 증폭시켰던 추미에 의원은 계속해서 무리수를 뒀다. 7월 3일 곡학아세 발언에 이어 4일에는 일요신문 보도를 근거로 내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 아니냐고 허무맹랑한 문제를 제기하더니 5일에는 술에 취해 "이문열 같이 가당치 않은 놈" "X 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를 가리켜) 사주 같은 놈"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정치 생명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싶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추미에 의원을 마주친 적이 있다. '저렇게 말했게 생긴 사람이 그때는 어째서 내게 그렇게 독하게 굴었던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홍위병 발언은 심하지 않았냐고 묻곤 했다. 나는 "시민단체들이 홍위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었지 그들이 곧 홍위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책 장례식으로 결과적으

로 그들은 홍위병임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또 묻는다. 작가가 왜 자꾸 세상에 개입하냐고. 불가능한 이야기다. 소설은 사람의 이야기다. 삶의 온갖 양태가 소설 재료로 쓰이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성·시대성이고, 이는 많은 경우 정치와 연관을 맺는다. 좋은 세상이 되면, 정치소설이 없어도 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언제나 정치 세계의 한가운데에 있다. 오히려 순수소설이야말로 정치성을 빼기 위해 무한한 정치적인 고리가 들어간다. 우리 시대의 삶을 그린다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1년 11월 책 장례식 직후 나는 문화 파괴의 야만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최소한 100일을 숙고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100일 후 내 결정은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공리적인 실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경제적인 것이든 대중적 인기나 명성이든 현실적인 보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최우선으로 삼는 독자도 나 자신이고 가장 권위 있는 판판도 나 자신으로 삼는 그런 문학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비문학적인 의견 발표를 아예 꿀을 수는 없겠지만 절제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듬해인 2002년 2월 내가 원작 희곡('여우사냥')을 쓴 뮤지컬 '명성황후'가 한국 공연 사상 처음으로 영어 버전인 영국 무대에 올랐다. 원작자 자격으로 런던을 찾았다가 영국 중부 요크셔 지방의 작은 도시 호워스(Haworth)를 방문했다. 국민학생 시절 노란색 표지의 '학원 소년소녀 세계명작전집'에서 섬뜩한 감동을 느꼈던 소설 『폭풍의 언덕』의 작가 에밀리 브론테(1818~1848) 생가를 개조한 문학관이 그곳에 있었다.

소설의 배경이 된 '폭풍의 언덕' 저택이 있었음직한 언덕길에 접근했다가 돌아온 문학관 2층에서 에밀리 브론테가 가끔 사용했다는 작은 골방을 발견했다. 창문을 통해 교회와 묘지가 보였다. 영생과 죽음, 천상과 인간을 상징하는 듯했다. 에밀리 브론테가 죽어 문헌 무덤을 보며 내가 그 전해에 치른 내전(內戰)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 돌아와서 나는 한 일간지에 이런 글을 썼다.

너는 지금 무엇에 분개하고 무엇을 한탄하는가 (...) 너는 함부로 저들을 쥐새끼와 쉬파리떼, 바퀴벌레들로 비하하고 있지만 너야말로 그 사이비한 것들을 지키려고 버둥대며 썩어 가는 살덩어리일 수도 있다 (...)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죄를 지고, 다시 한번 거듭나라.



2001년 6월 신문개혁국민행동 회원 50여 명이 서울 종로 YMCA 앞에 모여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모습. [중앙포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9월 10일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신문사들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한 이후 3개월 만이었다. [중앙포토]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장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웬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시 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민주당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더니 어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자”며 상임위 독식론을 꺼냈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당 전략기획위원장)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과 여당이 그렇게 협치를 촉구하다 선거에서 이기자 협치는 필요없다고 하는 모양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유공자법은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관련자까지 민주당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 준다. 2000년 이후 민주당유공자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에게 추가로 그 가족까지 도와주자는 이야기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존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당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 까잠이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떤 사람을 민주당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마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늘 ‘뒷문’이 열려 있다. 이런 허술한 법을 총선 승리를 빌미로 밀어붙이는 속내는 뻔하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에 다름없다.

입법 폭주, 협치 부정하라고 175석 준 것 아니다  
1당 보는 국민 눈높이 한층 올라갔음을 명심하길

입법 독주뿐이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관 회유’ 의혹에 “100% 사실로 보인다”(이재명 대표)고 했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면 반박이 나오자 돌연 침묵으로 돌아선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전방위 정치적 압박을 가해도 된다고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 의석수는 175석(민주당) 대 108석(국민의힘)으로 크게 차가 났지만, 두 정당의 득표율은 50.4%와 45.1%로 5.4% 차밖에 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라는 프리패스를 준 게 아니다. 100% 전권을 받은 것처럼 오해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수권정당에 걸맞은 합리적·균형적 사고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눈높이가 한층 올라갔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승리 담뭍폼처럼 나랏빚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돈을 나눠주자는 포퓰리즘 발상 갖고는 국민의 믿음을 얻긴 힘들다. 내주 중 관측되는 영수회담에서부터 달라진 민주당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2024년 암참 국내 기업 환경 세미나’에서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주요 의제였다. 올해 초 암참이 대통령실에 보낸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의 걸림돌로 꼽는 요인은 여럿이다. 우선 예측 불가능한 조세 집행이나 규제 정책 등이 한국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나 세금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도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심하게 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CEO가 형사처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이 CEO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도 글로벌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암참이 지적한 문제는 세심스럽지 않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던 것들이다. 다만 달라진 건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다. 암참이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아태 지역 본부 소재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

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 인터넷 플랫폼 등 산업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어진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 ‘탈(脫)중국’ 흐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업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는 5000여 개, 홍콩은 1400여 개다. 반면에 한국은 100개 이하다.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도 늘어난다. 글로벌 산업계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아시아 허브’란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을 잡기 위한 규제 개혁과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의 조건

김현기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라는 갤럽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믿었던’ 기사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2%이니 거의 붙은 셈. 이대로라면 곧 역전이다. “다른 나라 정상은 더 낫다”고 능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분노가 넘친다. 보수 인사들이 더 그렇다. “올화동이 터져 뉴스도 안 본다”는 분노 많다. 대략 10명 중 9명은 “윤 대통령이 변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그걸 믿겠느냐”고 한다.

취임 후 2년 가까이 거의 ‘뺨전 뉴스’에 가까울 정도로 현 정부를 낮뜨겁게 편들던 보수 신문도 이제 윤 대통령 공격에 열을 낸다. 어이없다. 대통령은 “난 잘하고 있어”란 착각, 오만에 빠지게 만든 책임 따윈 안중에 없는 듯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노부영’ 정당이란 말이 딱 맞다. 70대 이상 노인, 부자 동네, 영남에서만 힘을 쓴다. 이젠 60대도 외면한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122석 중 건진 건 고작 16%. 보수 결집론은 그저 TK·PK 이야기다. 의미도, 실체도 없다. 이 정도면 집권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 보인다. 사실 선거 전부터 ‘야당 단독 과반 지지’가 목표인 정당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대로라면 4년 후 총선 4년 패는 피하기 힘들다. 불편한 진실 또 하나.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는 또다시 서쪽 파란색, 동쪽 빨간색으로 정확히 양분됐다. 결국은 지도자 책임이다. 그나마 하나 건진 건 있다.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되겠구나”란 각성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했다. 그 각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지만 말이다.

#2 내가 보는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갑튀 후보’는 뽑지 말자. 멀쩡한 국민이 왜 “앞으로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미국의 오바마도 눈 뜨고 일어나니 대통령 된 것 같지만 실은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된 이후

8년의 정치 경험을 쌓았다. 일본의 총리는 최소 20년 경증을 거쳐야 후보 반열에 오른다. 중국은 더하다. 초급 간부 때부터 공장과 지방·중앙부처 등 이런저런 자리를 돌게 하며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국가관은 어떤지, 능력은 거품이 아닌지, 돈을 밝히는지, 부하를 머슴 다루듯 하지는 않는지, 국제적 감각은 있는지 검증한다. 짧게 20년, 길게는 30년 반복한다. 중국이 민주적이진 않지만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배경이다.

둘째,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을 뽑자. 건들건들하지도 말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국민을 알잡아보지도 말아야 한다. 긴장감·책임감을 24시간·365일 유지할 수 있는 인물 아니면 5년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적어도 다음번은 검찰 출신은 안 사서면 좋겠

갑자기 튀어나온 후보는 뽑지 말자  
‘호승심’ 성향의 검찰 출신도 곤란  
유튜브 아닌 NYT·FT 보는 이 뽑자

다. ‘정치하는 대통령’에는 검사 출신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 보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는 호승심(好勝心·반드시 이기려는 마음)보다 호민심(護民心·국민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다. 딱 그 정도에서 멈춰 정치를 바라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셋째, 다음번에는 결집을 촉구하는 지도자 말고 확장을 호소하는 지도자를 뽑자. 가두리 양식장에 지지자를 가둬 놓으면 본인도 덩달아 가두리 양식장에 갇히는 법이다. 극단적 유튜브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저 확장편향의 동네 부족장급이다.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야 보수건, 진보건 중도의 마음을 낚을 수 있는 법.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를 보는 지도자를 뽑자. 그러면 대만 해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부록 하나 추가. 기왕이면 배우자 관리도 잘한 지도자면 좋겠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 제1사 마곡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iversal)

물가안정  
**57탄**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APR. 25th - MAY 2nd, 2024**

일년 내내 햅쌀맛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상주 아자개쌀**  
**밥맛좋은 세일!!!**



Ajage Short Grain Rice  
(Premium Rice Grown in Korea)



**Good & Best**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주지역의 우수한 일품벼만을 엄선하여 10도씨 이하의 저온창고에 보관합니다. GAP 인증받은 위생적인 최신 도정설비라인에서 고품질의 쌀만을 생산합니다.

**단일품종! 최고의 맛을 가진 일품미!**  
일품쌀은 쌀알이 작고 알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식미감정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쌀입니다. 아자개쌀은 일품쌀을 재배하기가 가장 좋은 경북 상주에서 차려서 그 맛과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주시** | 김영석  
SANGJU CITY (상주인선시장)



**대한민국 상주에서 자란 아자개 쌀**  
Ajage Rice (Korean Premium Rice)  
깨끗한 환경과 살아 숨쉬는 곡보에게 정성껏 생산하여으로써 사질부터 버릴것 없도록 보관하여 입안후에 햅쌀맛을 자랑하는 밥맛 좋은 쌀입니다.  
NET WT. 15LBS (6.81KG)  
아자개영농조합법인 × LOTTE market  
문의: (054)532-1903

**상주 아자개쌀**  
Ajage Short Grain Rice  
~~\$23.99~~ **\$18.99**  
15 LB

판매 중 오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용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Sterling, VA: 20 Plaggon Hill Dr. Sterling, VA 20155
- Centreville, VA: 58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290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nniandale, VA: 5204 F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630 Fair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90 Edden Street. Herndon, VA 20171
- Ellicott City, MD: 89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1
-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 Silver Spring, MD: 116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25, 2024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종증**  
임종증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Z세대 내집 장만, '영끌' 할까 말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한다〉

**주택구입 계획 시 고려사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첫 주택 구입자의 중간 연령 (median age)은 35세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6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내집 장만 연령이 조금 낮아진 것이다. 즉 요즘 35세 이전 내집 장만하는 이들은 '영 바이어'가 되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고려했을 때 Z세대 주택 구입자는 '유니콘'이라 할 만큼 희귀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Z세대의 첫 집 장만은 너무 이른 것일까? 또 Z세대들이 주택 구입 시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봤다.

## 다운페이먼트 외 클로징·이사 비용 필요 이직, 학업 등 고려해 거주기간 따져봐야

**▶현황** 요즘 같은 집값과 재고 부족, 모기지 이자율을 생각했을 때 Z세대에게 내집 장만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30년 전인 1991년 주택 구입자 중간 연령 (median age)은 28세로 20대 때 집 구입은 그리 희귀한 일은 아니었다. 이후 2011년 30세, 2021년 33세로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30년 새 첫 집 장만 연령이 열살이나 경증 뛰어올랐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에선 18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예외 지역은 앨라배마와 네브래스카로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구입 가능한 합법적 연령이 된다고 해도 대출 승인 여부가 가장 큰 관건.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은 소득, 신용점수, 자신 및 부채를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하므로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점** 이른 나이에 내집 장만 시 가장 큰 장

점은 부동산 투자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구입한 집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집 가치는 올라가므로 시간이 지난 후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또 낮은 이자율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아파트를 렌트해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주택 구입을 통해 좋은 신용기록을 쌓을 수 있고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정적 고려사항** 부동산 전문가들은 "첫 주택 구입은 일생의 가장 큰 금융 거래"라며 "전 연령대를 막론하고 결국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금 구입이 아닌 이상 모기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구매자들은 집값의 평균 14.7%, 약 3만400달러 정도를 다운페이먼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소재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지난 5



Z세대가 내집 장만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재정과 신용 점수 외에도 학업과 이직 등 현실적인 거주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unsplash.com 캡처)

년간 주택 구입을 도와준 20대 고객들 중 90% 이상이 부모의 재정적 도움으로 집을 구입했다"며 "그러나 구입 후 모기지 상환과 생활비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계획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다운페이먼트만 확보된다고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클로징 비용 및 이사 비용도 확보해야 한다. 클로징 비용은 대출금의 3~6% 정도인데 이는 모기지 대출에 포함돼 대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 비용은 전국 평균 1250달러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단순히 주택 구입과 이사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1년 치 모기지 상환금과 재산세, HOA 관리금 등 안정적 예산이 확보돼야 안전하다"며 "일부 지역 콘도에선 20% 다운페이먼트 및 18~24개월에 해당하는

모기지 상환액 예금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도 중요하다. 대출기관은 은행 잔고가 충분해도 신용기록과 점수를 중요시 여기는데 대출 승인을 위한 최소 신용점수는 620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 매매를 위해 충분한 예금을 갖고 있지만 신용 점수 또는 신용 기록이 좋지 않아 대출 상환 신청이 반려된 경우가 적었다고 한다.

대출 전문가들은 "모기지 승인을 위한 안정적인 신용점수는 720점 이상"이라며 "또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개인 대출 등 신용 거래 계정이 3곳, 거래 기간은 최소 12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전문가들은 "일부 대출기관은 신용보고서에 거래 라인 3~4곳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대출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4면 '주택구입'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트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잇마쉬 메릴랜드	<b>도장</b>	<b>그로서리</b>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b>상가</b>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b>사무실</b>	단독 건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에난델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b>버블티 가게</b>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b>주 택</b>	투자 컨설팅	<b>주책</b>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먼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정/사무실/창고 설립	<b>콘도</b>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스지

조선 수출 증가율 배증가  
수주잔량 7년전의 배 수준  
배값 지수 처음의 배 육박

# ... '배' 얘기가 많이 들린다

2007년 10월 현대중공업(현재 HD현대중공업)의 주가는 55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3위. 당시 현대중공업보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삼성전자와 포스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HD현대중공업의 주가는 12만2700원. 2007년 10월 대비 반의 반 토막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37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대표 수출 효자 업종으로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장기 불황에 허덕였고, 그 결과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지요. 그러다 최근 반전의 조짐이 보입니다.

조선업 주가는 그동안 간혹 꿈틀던 적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우하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업황이 다소 회복된 이후에도 반도체나 2차전지·바이오에 밀려 무대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에 '사양 산업' 이미지까지 씌워지며 과거와 같은 주가 상승세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몇몇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선박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가 대표적이다. 호황의 정점이던 2007년 말 수준으로 치달는 분위기다. 선박 수주 및 수출 성적도 양호하다. 여기에 엔화 환율, 미·중 분쟁과 같은 외부 변수도 조선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연 혹독하고 길었던 '조선업의 겨울'이 정말 끝난 것일까. 조선업에 모처럼 불어든 훈풍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봤다. 현재 조선업황과 앞으로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신조선가(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 지수'다. 1988년 전 세계 선박 건조 가격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했다. 숫자가 크면 선박 건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이 집계한 신조선가 지수는 202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5개월째 올라 올 해 들어 180을 넘었다. 이 지수가 180 이상에서 움직인 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이어진 10개월 동안이 마지막이다. 2008년 8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91.5를 넘볼 태세다. 선박 건조 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배를 만드는 조선업 회사의 수익성에 보탬이 된다.

이에 올해 주요 한국내 조선회사들은 지난해 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다

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022년 35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823억원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는 9400억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다. HD현대중공업(1786억원 → 5000억원), 삼성중공업(2333억원 → 4279억원)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19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화오션은 올해 2000억원 가량의 흑자를 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한국내 조선 기업들의 수주 상황도 순조롭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약 18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45.5%를 올해는 1~3월 석달 만에 해낸 것이다. 분기 기준 선박 수주액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한국 조선업이 1위를 기록했다.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미래 일감도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새다.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의 실적 호조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주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 영향을 끼쳐왔다. 최근에는 그 여파가 조선업에 번졌다. 전미철강노조(USW)를 포함한 미국 내 5개 노조가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면서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노조 측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답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과 수주 실적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런 만큼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가 한국 조선업에 반사이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 조선업 제재를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의 반사이익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갈등 수혜 정도에 대해선 '대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선주가 전 세계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 수준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실제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한국 조선산업의 수혜 정도는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향후 한국 조선업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최근 이어진 기록적인 엔저(低) 현상의 기반이 됐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종지부를 찍으면서다. 일본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일본 기업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엔고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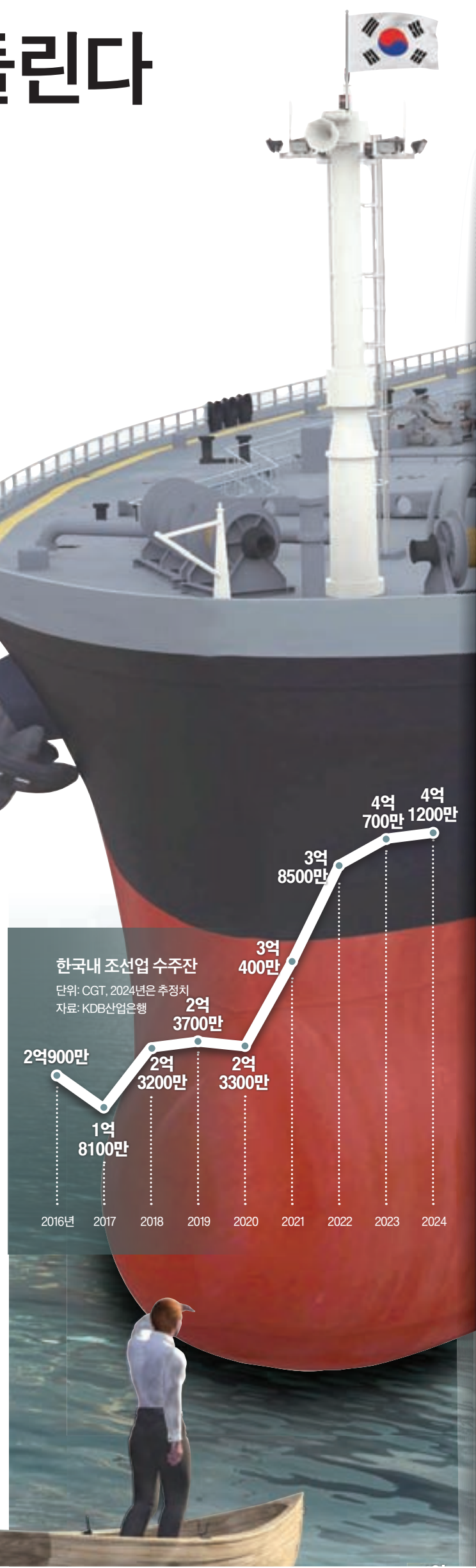
지난달 한국 수출 성적표에서 조선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15대 주요 품목 중 선박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2.1%로 가장 높았다.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이다. 수출 호조에 수주 행진이 이어지며 현재 조선업이 2007년 못지않은 수퍼 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장밋빛 견해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미래 일감인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선업 투자에 적합한 시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에 대한 시장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운반선 발주와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 기술을 적용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등 겹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완성 조선업체가 있다. 또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류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한화엔진·현대해스·한국카본과 같은 회사다.

또 조선업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있다.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의 경우 3대 완성 조선사 및 선박 기자재 기업을 포함해 총 12종목에 투자한다. 김민성 신한자산운용 ETF운용팀 매니저는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 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한국내 유일 조선 ETF인 SOL 조선 TOP3 플러스는 조선업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진한 세계 경제를 고려해 볼 때 조선업 수퍼 사이클이 얼마나 현실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남현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돈이 되는 '다·랩'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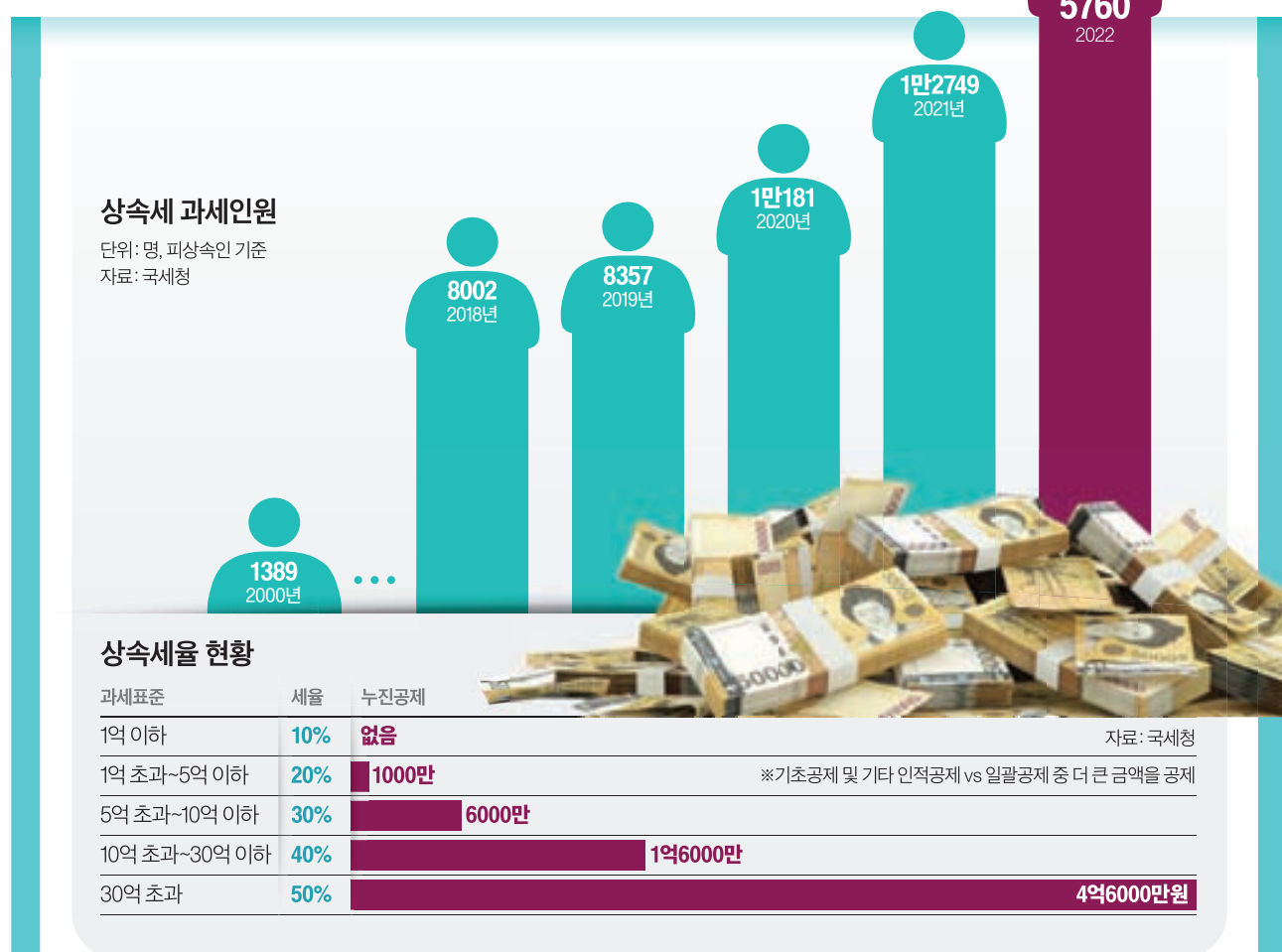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으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구 회장 등이 2018년 별세한 구분부 전 회장으로 부터 상속한 유산(원LG 지분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로 구 회장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일반 국민은 재벌가의 송사(訟事)에 무덤덤할 만도 한데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이 뜨겁다. 누리꾼 mins\*\*\*\*는 “과거를 기준으로 나라에서 (유산의) 50%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사이) 물가가 몇 배가 올랐다”면서 “요새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안 내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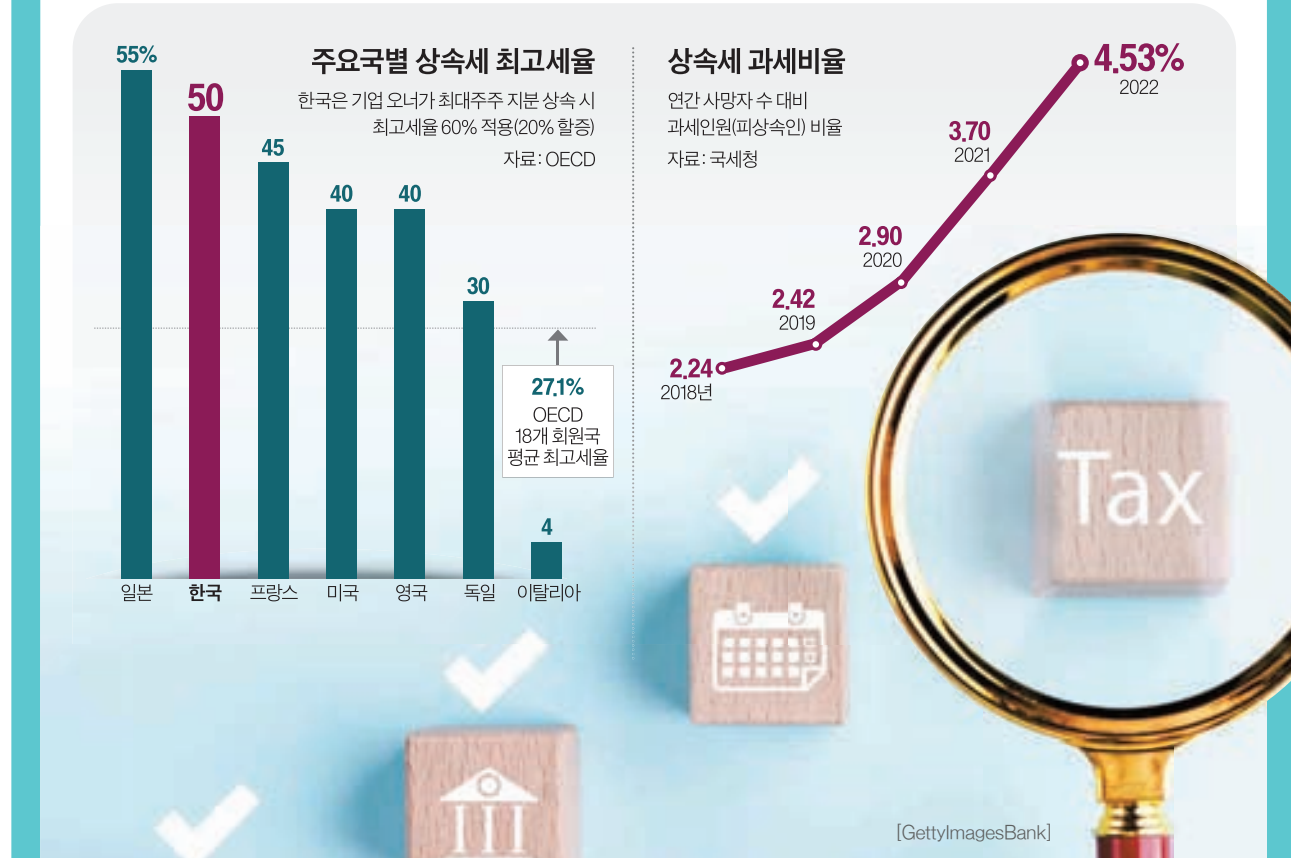
“소득세를 평생 냈는데 다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거나, “현실에 맞게 빨리 법 개정을 해 달라” 등의 반응도 온라인에서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최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8002명이던 상속세 과세인원(피상속인)은 2022년 1만5760명으로 5년 사이 2배로 늘었다. 2022년 기준 과세비율(사망자 수 대비 피상속인 비율)은 4.53%. 지난해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민의 5%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먼 부유층의 일로만 여겼던 상속세 문제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만큼 강해졌다.

호주·캐나다 등은 상속세 아예 폐지 총선 종료와 다음 달 22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공약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상속세 체계가 국민의 세금 납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가치 저평가와 증시 등 자본시장 수요 위축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총 189석을 확보한 야권은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와 이를 통한 ‘부의 대물림’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때문에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계는 물론 중산층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은 세계 2위다. 특히 기업 오너가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땐 최고세율 60%(평가액의 20% 할증 과세)로 세계 1위다.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7.1%)보다 1.8~2.2배 높다. 프랑스(45%)나 미국·영국(각 40%), 독일(30%) 모두 한국보다 낮다. 이탈리아(4%)처럼 최고세율이 극히 낮거나, 캐



## 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 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나·호주처럼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선진국도 적잖다. 한국에서 상속세는 내로라하는 재벌마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징벌적 세금’으로 언급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에만 1조원 규모가 넘는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삼성가(家)에선 2020년 별세한 이근희 전 회장으로 부터 상속한 유산에 부과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고 있다.

그때마다 기업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약품그룹은 송영숙 회장이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중 절반 납부를 위해 최근 OCI그룹에 지분을 매각하려다 두 아들과 경영권 분쟁을 겪어야 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주가 2022년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지주사인 NXC 지분 29.3%를 기획재정부에 물납(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해 정부가 2대주주로 올라섰다. 최대 7조원 규모 상속세가 예상되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상속세 때문에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 토로한 이유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존속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산층의 경우엔 이런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 과세표준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은 1999년 마지막 개편 이후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즉, 25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정립된 체계라 그사이의 오른 물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25년 전만 해도 10억원은 부유층만 가질 수 있는 큰 금액으로 인식됐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유산에 매겨지는 40% 상속세율이 당시만 해도 중산층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25년간 경제 규모가 급증하는 한편 물가는 거침없이 올랐고, 특히 지난 정부 때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중산층 재산 수준이 달라졌는데 상속세 체계는 25년 전 그대로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1억 5000만원이다. 이를 한 채 상속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40%의 상속세율, 1억6000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공제(5억원) 및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에다 인적공제(5억원)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 체계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5년 전에 비해 ‘100세 시대’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에선 부모 별세 전에 배우자와 사별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경우 배우자 없이 자녀 1명만 있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만 1억원가량 내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이창균 기자 >> 4편 '상속세'로 이어집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b>\$1,110,000</b>	<b>\$426,000</b>	<b>\$580,000</b>	<b>\$840,000</b>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b>VA 센터빌</b> <b>703-815-2300</b>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b>MD 락빌</b> <b>301-881-1000</b>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b>MD 엘리콧 시티</b> <b>410-715-3500</b>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	--	---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골목길 살린다던 백사마을, 다 허물고 아파트로 짓는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이 12년 만에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가 달동네 지형과 골목길을 그대로 살려 단독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했지만, 3.3㎡당 1500만원에 달하는 건축비 부담에 결국 아파트 건설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최고 층수 35층, 304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통개발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최고 20층 규모 아파트(분양가구) 1953가구, 주거지 보전사업구역인 임대주택 단지 484가구를 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지만,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사마을은 국내 최초의 주거지보전사업 대상이었다. 분양 물량은 아파트로 짓되, 임대주택 사업지(전체 대지의 28%)는 옛 동네 골목길과 자연지형, 주거·문화 모습을 남긴 채 재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백사마을은 근대생활사 박물관이며 몽땅 밀어버리는 재개발 방식은 지양하자"며 제안했다. 서울시

12년간 보전사업에 100억 투입  
지난달 '아파트+주택' 인가 불구  
3.3㎡당 1500만원 건축비 발목  
최고 35층, 3043가구 규모 추진

는 이듬해 임대주택 단지를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처음에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지만,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이 많았다. 결국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주거지보전사업은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건축가 10명이 2014년부터 설계를 맡아 기존 경사지와 기존 집터를 살려 최고 4층 규모 136채(484가구)를 디자인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문제였다. 경사지를 살려 단독주택을 짓자니, 임대주택 공사비가 3.3㎡당 1500만원에 달했다. 아파트형 임대주택 건축비(3.3㎡당



서울시는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왼쪽 사진)을 철회하고, 전체를 아파트로 짓는 정비계획변경안(오른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SH공사]



4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484가구를 매입하려면 3623억원이 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가 조례까지 개정해 이곳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건축비를 정할 수 있도록 방침까지 바꿨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났다. 전부 철거한 뒤 획일적으로 짓는 아파트 외의 재개발 방식, 더 나은 임대주택 건립을 고민하며 12년간 사업을 끌어왔지만 결국 값비싼 보

전 비용 벽을 넘지 못했다.

황진숙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주거지보전사업 탓에 사업만 늦어졌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에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주거지보전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임대주택도 아파트로 짓는 정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입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 철회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12년간 들인 사업비와 건축가들과 계약문제 등을 꼽는다.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서울시에 주거지보

전사업 관련 방침을 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주거지보전사업을 맡은 건축가와 계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부터 타당성 조사 등까지 쓴 비용이 100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비계획변경안이 접수되면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 서울 가양·등촌 택지지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추진

SH, 임대주택 6800가구 적용 검토  
용적률 150%까지 확대 등 규제 완화

서울 강서구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특별법) 적용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외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을 추진하는 사례다. 특별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의

택지지구는 111곳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에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2일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서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호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김 사장은 "가양·등촌에는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6800여 가구가 있다"며 "이곳 재건축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에서 아직 이런 계획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

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특별법 적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등 건축 규제 수준이 완화돼 일반 재건축보다 훨씬 유리해 서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정 요건에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

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고, 기존에 제시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의 면적 기준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입안 당시 전국 51곳이던 특별법 총족 택지지구가 108곳으로 늘었다. 이후 3곳이 추가되면서 111곳이 됐다.

김원 기자

### ▶ 1면 '주택구입'에서 이어집니다

#### ▶ 거주기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20대들의 경우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주택 구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구입 시 단순히 재정적 상황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주택 구매 후 그곳에서 얼마나 거주할 것인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매 후 세금과 이사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2~3년만 거주하고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것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이직과 학업 등을 이유로 이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고민 후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 ▶ 3면 '상속세'에서 이어집니다

#### 셀트리온 회장 "상속세 탓 국영기업 될 것"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해서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약 1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2배,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배 올랐는데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아야만 세금 부담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 역시 미혼과 비혼, 저출산과 딩크(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확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보편화하면서 국민

삶의 형태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세 연대납세의 무가 있는 것도 개선점으로 거론된다. 가족 전체에 매겨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 몫까지 내야 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이 이처럼 상속세 폭탄을 맞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사실상 부유층만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부모 1인당 유산 1170만 달러(약 163억원), 부모 합산 2340만 달러(약 326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

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세 조세심판 접수 건수는 2019년 221건에서 2021년 261건, 지난해 307건으로 증가했다(전년 이월분 포함).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25년 목은 상속세 체계를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감면을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의 상속세율은 해외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유지할 경우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속세 부담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미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용자”

- 주택용자
- 자영업자용자
- NON-QM
- DSCR용자
- 외국인용자
- 상업용자

VA/MD/DC/TX 외 12개주 가능

Sylvia E Son

Sr. Loan Officer ( NMLS: 2315308)

EMET

MORTGAGE

(NMLS: 1301672)  
7619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 4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 주택 매매 /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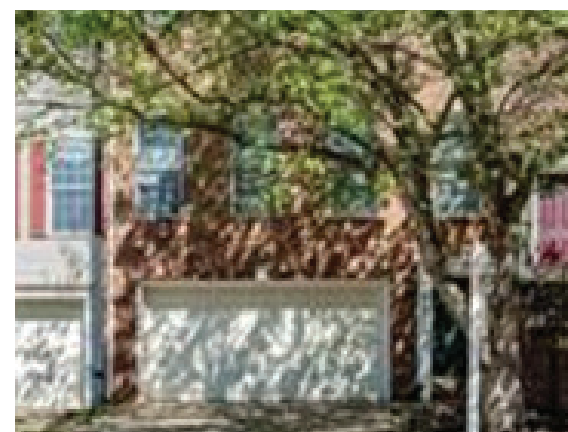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콘도 (타운홈타입 3층짜리)**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약척같은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 크레딧의 중요성

사실 크레딧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주택용자를 얻는데 있어서 그 중요함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크레딧이 곧 이자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어떤 대출에 비해서 금액도 크고 상환기간도 긴 경우가 대부분인 주택용자에 있어서 작은 이자율의 차이에도 그 페이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밖에 없으므로 크레딧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용자를 시작하기전에 크레딧을 미리 확인하고 최상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크레딧을 미리미리 잘 관리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주택용자 신청 최소3개월 이전에는 꼭 크레딧을

확인하길 권유한다. 미리미리 크레딧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것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번 더 크레딧을 조회하면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크레딧 확인 자체를 꺼리곤 한다. 물론 크레딧 조회가 크레딧 점수의 하락을 가져다 주는것은 원칙적으로 맞는말이다.

모든 대출의 첫 출발점이 크레딧의 확인이다. 따라서 크레딧 조회가 발생한다는것은 곧 대출신청을 의미함으로, 크레딧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빛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리스크로 판단을 해서 점수하락을 기인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눈여겨 보아야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할 예외가 있는데, 바로 1990년대후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후 주택용자관련 크레딧 조회는 일정기간 (대략 3개월) 안에서 아무리 많은 횟수의 크레딧 조회가 발생

을 해도 단 1회로 간주함으로써 이로인한 점수하락을 막고있다.

만일 오늘 A은행에서 크레딧을 확인한 고객이 더 나은 조건의 용자상품을 찾기 위해 내일 B은행을 방문해서 새로운 크레딧 조회로 인해 크레딧 점수가 하락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즉, 자유롭게 비교하고 쇼핑할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받게되니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예외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용자 관련 크레딧 조회는 여러군데서 또 여러번 발생해도 아무상관없이 점수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다른 은행간에 조건들을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적합한 최상의 조건을 찾을수 있기를 당부한다. 또 미

리미티 최소 3개월 이전에는 본인의 크레딧을 확인해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수 있는, 또 만일 크레딧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점수가 좋지않다면 크레딧 카드 한도 대비 사용잔액을 30% 이하로 낮춰서 점수를 상승시킬수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지혜가 필요할것이다.

주택용자가 대부분의 개인에게 있어 일평생 얻는 최대규모의 대출임은 모두가 동의 할것이다. 이런 큰 규모의 용자를 얻는데 나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이자율이나 대출을 받는 조건에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깝지 않을것이다.

>문의: 703-868-7147

### 마스터 리스 투자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테넌트 관리와 건물 관리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부동산 통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자는 매매를 통하지 않고, 마스터 리스 방식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이용해 건물에 대한 컨트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건물을 개선하고 소유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리스는 투자자가 건물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건물의 운영을 통제하고 나중에 매입할 옵션을 갖는 전략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투자자가 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맡아 개선함으로써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가치 상승을 통해 투자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마스터 리스 계약을 통해, 투자자는 현 건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필요한 개량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임대료를 증가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종적으로는 건물의 시장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금 형편이 안되는 건물주 입장에서 매우 좋은 대안입니다.

마스터 리스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저비용으로 건물 관리 시작**  
투자자는 큰 초기 투자 없이 건물 운영에 참여하고, 운영 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성 개선**  
건물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장기 임대 계약을 유치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구매 옵션**  
리스 계약에는 대개 나중에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는 개선된 건물을 매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용자 승인 용이성**  
건물 가치 상승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인해 매입 시 용자 승인을 받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일반적인 마스터 리스 계약 기간은 5년에서 15년 사이가 보편적이고, 리스 계약 종료 시에 리스 초기에 약정된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옵션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자에서 테넌트 관리가 힘든 건물주가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리스 전략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 건물 상태, 시장 동향, 법적 요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개선에 필요한 자본과 리스 기간 건물 운영에 관련된 위험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터 리스는 건물 개량을 할 수 있는 초기 자본과 테넌트 관리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 분석, 계약 조건 파악, 그리고 재정적 계획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건물 상태가 허술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제한적인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브랜트 쿠퍼 - CBRE KOREA DESK

### 악성 크레딧 오류 정정

오늘 칼럼에서는 악성 연체 기록을 정정·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물론 여러 크레딧 정정 기관에 요금을 지불하고 처리를 의뢰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 절차와 내용을 알고 의뢰하는 것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의뢰한 상태로 무작정 해결 완료 통보만 기다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타인의 악성 연체 기록을 정정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선 3개의 크레딧관리 기관, 즉, 이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언(Experian) 및 트랜스유니언(Transunion)의 3개의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정정 및 삭제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아래의 여러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알려줄 것이다.

먼저, 신원 도용 진술서(ID Theft or Fraud 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하다. 다만, 경찰국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정형화된 양식이 있어 인쇄하고 출력 후 사용하면 된다. 신원 도용 진술서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양식으로 보통 4페이지 정도 된다. 이 양식은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한 후에 복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를 해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면 경찰직원이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에 리포트를 발부한다. 처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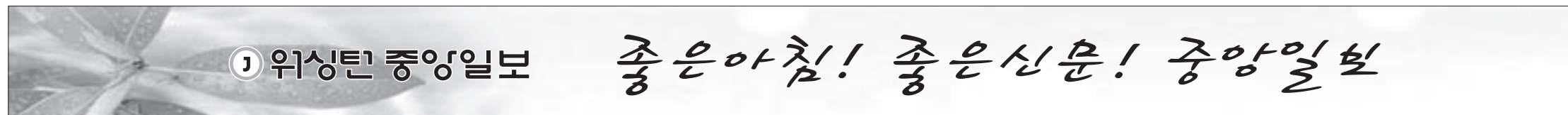
악성증명서를 발부해 주지만, 10일 후에 다시 가서 전체 리포트(Full Report)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컬렉션컴퍼니로 보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 소셜 시큐리티카드 사본,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수도세, 전기세 영수증 등 2가지), 악성 연체기록이 나와 있는 크레딧 리포트의 첫째 페이지를 카피한 후 이메일로 컬렉션컴퍼니에 보내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고 난 뒤 마냥 기다리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롭다.

즉, 우선 이메일로 보낸 후 새로 카피를 한 부 더 만들어서 컬렉션컴퍼니의 주소를 찾아서 우편메일로 보내면 더욱 확실하다. 그다음 회사가 이 일을 조사하는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가량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우는 아이 몇 한 번 더 준다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의하면 그만큼 조사하는 담당자가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2주 또는 3주 후에 회사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문제가 된 금액과 어카운트는 본인의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기록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기록을 이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자신의 크레딧 관리회사를 제외한 2개의 크레딧 관리회사에 통보했다'라는 결과문을 편지로 받게 된다.

제이슨 성·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후원 투자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b>Bowie</b>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b>Edgewater</b>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b>Rockville</b> \$280,000 콘도	 <b>Perry Hall</b> 싱글홈, 방3, 화2.5	 <b>Ellicott City</b> \$689,000 싱글홈, 랜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
 <b>Cockeysville</b>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b>Columbia</b> 싱글홈, 방4, 화2	 <b>Ellicott City</b>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b>Rockville</b> \$520,000 싱글홈, 방4, 화2	 <b>Cooksville</b> \$449,000 싱글홈, 방4, 화2.5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b>Elkridge</b>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b>Hanover</b>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b>Germantown</b>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b>Glen Burnie</b>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b>Hanover</b>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b>Odenton</b>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 5개 대회 연속 우승... 지금은 코다의 시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26·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역대 3번째로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코다는 22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우들랜드의 더 클럽 칼턴우즈에서 열린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79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타를 줄여 함께 13언더파 275타로 정상을 밟았다. 2021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다시 메이저 대회를 제패했다. 통산 13승. 코다는 이날 우승 상금 120만 달러(약 16억5000만원)를 받았다. 그는 이 대회 전통에 따라 18번 홀(파5) 근처의 호수 풍덩 뛰어드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LPGA 투어 5연승을 자축했다.

이전까지 LPGA 투어에서 5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은 단 두 차례만 나왔다. 1978년 낸시 로페스(68·미국)가 5월 그레이터 볼티모어 클래식부터 6월 뱅커스트러스트 클래식까지 5개 대회 우승 트로피를 싹쓸이했다. 이어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54·스웨덴)이



넬리 코다가 22일 끝난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이로써 코다는 역대 3번째로 5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전통에 따라 연못에 뛰어든 뒤 가운을 입고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코다. [로이터·연합뉴스]

2004년 11월 미즈노 클래식부터 2005년 3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까지 두 시즌에 걸쳐 5연승을 달성했다.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은 세브론 챔피언십의 전신이다.

20년 가까이 나오지 않던 5연승 기록을 역사책에서 다시 꺼내 든 주인공은 코다였다. 지난해까지 8승을 거뒀던 코다는 올해 1월 드라이브온 챔피

언십을 시작으로 지난달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그리고 이달 포드 챔피언십과 T-모바일 매지플레이, 세브론 챔피언십을 연거푸 제패하면서 5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서 코다는 역대 최고의 상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공동 16위를 기록했던 1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3000만

원을 쟁긴 데 이어 4연승 우승을 차지 하면서 16억원을 추가해 총 16억3000만원을 벌었다. 여기에 메이저 대회인 이번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 상금 16억 5000만원을 더해 올해 총 32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코다가 19개 대회에서 쟁긴 상금은 19억원. 올해는 시즌 초반에 벌써 지난해 상금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일정이 순연된 탓에 코다는 마지막 날 3라운드 잔여 7개 홀을 돈 뒤 4라운드 18개 홀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3라운드 종료 시점에선 유해란(23)이 함께 11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달렸다. 코다와 브룩 헨더슨(27·캐나다)이 함께 10언더파 공동 2위로 뒤를 쫓았다.

올 시즌 아직 우승이 없는 유해란은 4라운드 초반부터 흔들렸다. 1번 홀(파4)과 2번 홀(파4)에서 잇달아 보기를 했고, 5번 홀에서 다시 1타를 잃었다. 반면 코다는 3번 홀(파3)과 4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선두로 올라섰다.

우승은 마지막 홀에서 결정됐다. 앞조의 마야 스타르크(25·스웨덴)가 18

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1타 차이로 따라온 상황. 코다는 이 홀에서 침착하게 투온에 성공한 뒤 버디를 추가 하면서 2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코다는 5연승을 확정된 뒤 아버지 페트로 코다(56), 어머니 레지나 라크르토프바(56·이상 체코)와 얼싸안고 감격을 나눴다. 코다는 스포츠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테니스 선수 출신이고, 남동생인 세바스찬 코다(24·미국)도 현역 테니스 선수다. 언니인 제시카 코다(31·미국)는 LPGA 투어에서 통산 6승을 거뒀다.

이날 25개 홀을 소화한 코다는 "내 생애 가장 길었던 후반 9홀이었다"며 "후반 들어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의식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긴장했다"고 밝혔다. 코다는 다음 주 열리는 LA 오픈에서 전인미답의 LPGA 투어 6연승에 도전한다.

스타르크가 함께 11언더파로 2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날 2타를 잃은 유해란은 함께 9언더파 공동 5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공동선두를 달렸던 임진희(26)는 함께 6언더파 8위다.

고봉준 기자

보이그룹이 청량 콘셉트로 무장하고 대중 걸로 돌아왔다. 22일 멜론 일간 차트 기준으로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3위를 차지, 차트상 위권에서 뽐낸 중이다. 라이즈 '러브 119',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데자 뷁'도 차트에 안착했다. 윤광은 대중음악평론가는 "팬덤 산업에서 자진해 고립됐던 보이그룹이 최근 들어 밝은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보이그룹은 치밀한 세계관, 칼군무로 대표되는 강한 퍼포먼스 등 코어(핵심) 팬에 초점을 맞춰 성장해왔다. 그러다 보니 대중적인 이미지와 노래를 앞세운 걸그룹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즘 각광받는 보이그룹의 공통점은 '라이트 팬덤'을 겨냥한 청량함이다. 올 1월 데뷔한 투어스는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멜론 차트 1위까지 거머쥔고, 금영 노래방 차트에서 3월 보이그룹 인기곡 정상에도 올랐다.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의 한성수 총괄프로듀서는 '자연스러움'을 투어스의 매력으로 내세웠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이 친구들이

## 무거움은 버리고, 밝음을 입었다... 보이그룹의 반격



하이브 소속의 투어스(왼쪽)와 SM의 막내그룹 NCT WISH(엔시티 위시)는 청량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진 플레디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산하 박히트뮤직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달 초 발매한 미니 6집 '미노스드 쓰리: 투모로우'에 수록된 9개 트랙이 발매 당일 멜론 차트에 올랐다. 특히 타이틀곡 '데자 뷁'는 멜론 톱100 차트에서 최고 10위까지 올랐고, 뮤직비디오는 일본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등극했다.

'데자 뷁'는 2010년대를 장식했던 2세대 K팝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다. 뮤직비디오에선 멤버들이 다같이 모여

푸른 하늘을 향해 달려나간다. 수록곡인 '내일에서 기다릴게'도 청량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흰 셔츠에 청바지 의상, 밝고 경쾌한 비트, 충실한 안무 등이 포인트다.

SM엔터테인먼트 신인그룹 라이즈는 첫사랑의 감정을 소환한 그룹이다. 발매 3개월째 멜론 차트 상위권 불박이로 있는 노래 '러브 119'는 노래방 히트곡인 이지희의 '응급실'을 대중적인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곡이다. 이들의 데뷔곡 '갯 어 기타'도 차트에서 뽐낸 중이다. 기타 소리에 멤버들이 모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의 팀이 돼간다는 노

랫말에는 청춘의 꿈이 담겨 있다.

솔직함을 전면에 내세운 그룹도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그룹 NCT 위시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데뷔 한 달 기념 미디어데이를 열고 캐스팅 과정부터 데뷔 이후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갓 데뷔한 아이돌 그룹으로서 유례가 없는 홍보 방식이다. 행사에서 목포 출신인 시온은 "SM에서 DM 캐스팅을 받았지만 상경이 무서웠고 학교도 빠져야 하고,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워서 거절했다. 결국 SM 담당자가 목포로 내려와 오디션 을 보고 데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의 트레저는 연애 프로그램인 SBS '빛나는 솔로'에 출연 중이다. 아이돌은 연애해선 안된다는 금기를 깬 행보다. YG 관계자는 "포장된 아이돌의 이미지가 아닌, 평범한 남자의 친근한 매력을 꾸밈없이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하이브·SM·YG 등 대형기획사가 청량 공식의 대중 친화 전략을 앞세우면서, 보이그룹 시장은 비슷한 콘셉트로 재편되고 있다. 첫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 시절'을 발표한 이펙스, "편안한 음악으로 10~20대를 넘어 부모님 세대까지 사로잡겠다"는 엔카이브는 지난 9일 나란히 쇼케이스를 열었다. 14일 컴백한 DKZ도 청량 콘셉트의 노래 '라이크 어 무비'를 공개했다.

임희운 대중음악평론가는 "아이돌 그룹이 정제된 모습으로만 활동을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다. 자연스럽게 솔직한 모습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신비감이 친근감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대형기획사들이 내건 남성 아이돌의 청량 콘셉트가 하나의 흥행공식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지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get rained out: 비가 와서 중단되다

Two friends are having a drink.  
(두 친구가 술을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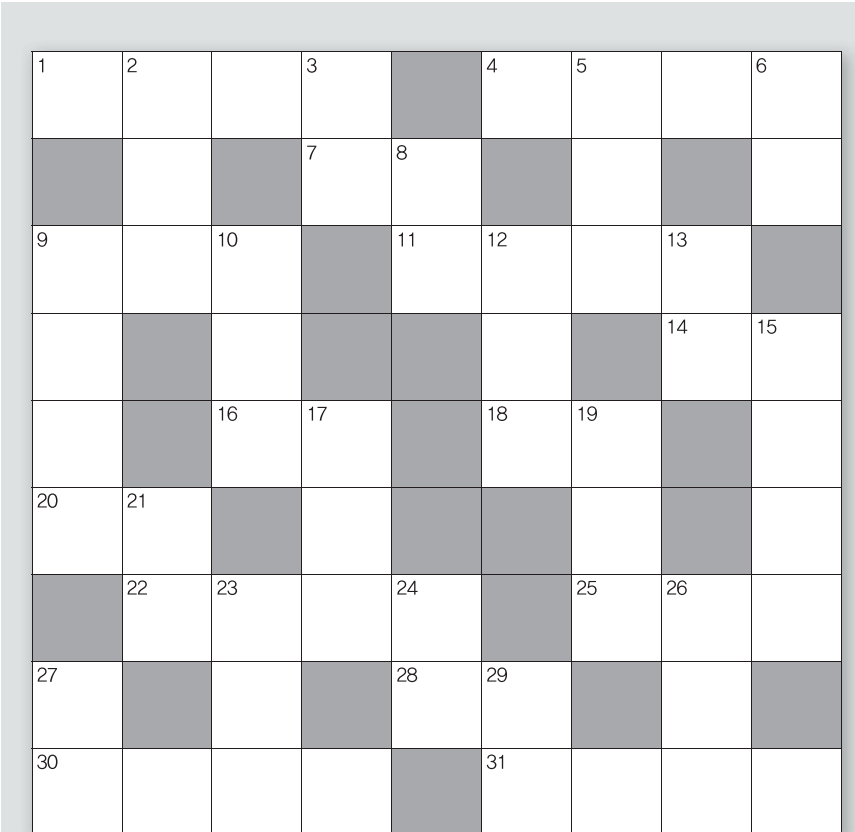
Ben: After days of cloudy rainy weather it's very nice to feel the warm sunshine.  
벤: 며칠 흐리고 비가 오다가 따스한 햇살이 비치니 너무 좋다.  
Gene: That is very true. I draw a lot of energy from the sun.  
진: 정말 그래. 나는 해가 나면 힘이 펴떨나.  
Ben: I do too. A few days without sunshine brings me down.  
벤: 나도 그래. 며칠 햇빛이 없으니 우울했어.

Gene: But the real problem with rain is we can't play golf.  
진: 근데 비가 오면 골프를 못 치는 게 진짜 문제야.  
Ben: Actually I tried to play on Sunday but I got rained out.  
벤: 사실은 일요일에 골프를 치려다가 비가 와서 관렸어.  
Gene: You picked the day that it rained the hardest.  
진: 비가 제일 많이 온 날을 골랐구나.  
Ben: I know. I could have picked a better day.

벤: 글썄 말이야. 더 좋은 날로 잡아야 했는데.  
Gene: Let's pick another day now that the rain has stopped for a while.  
진: 잠시 비도 그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따로 날을 잡자.  
Ben: How about Saturday morning?  
벤: 토요일 아침 어때?  
Gene: I'm tied up Saturday but I'm free Sunday.  
진: 토요일은 너무 바빠. 대신 일요일은 시간이 돼.

**기억할만한 표현**  
▶ draw A from B: B에서 A를 얻다.  
"I draw a lot of satisfaction from the A I got in my writing class."  
(작문 수업에서 A를 받고 크나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 bring (somebody) down: (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That movie really brought me down."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우울했어요.)

날말퀴즈



가로열쇠

(1)자기 눈에 물 대기.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함. 아로로 (4)이 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차로로 (7)어떤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9)도루를 못하도록 단지는 공 (11)축구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하게 되죠 (14)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뿔나무 (16)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죠 (18)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름 (20)우리 몸에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는 기관. 염통 (22)집안의 재산을 모두 써서 없애 버림 (25)남동생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28)자동차에 기름을 넣음 (30)오기는 걸음이나 발자취.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일. 외상값을 다 갚은 후로 그는 우리 식당에 ~도 아니하고 있다. 그로로 (31)물기 있는 모래를 손등 위로 쓸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손을 살며시 빼내어 모양을 만드는 흙장난. 어릴 때는 바닷가에서 모래성도 쌓고 ~도 지으며 놀곤 했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동요가 있지요. 그로로

세로열쇠

(2)어떤 행사에 앞서 그 전날 밤에 베푸는 축제 (3)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5)기운, 습도, 기압 따위가 하루 동안에 변화하는 차이 (6)해가 뜬 새벽부터 바닷가로 나와 동해의 ~을 기다린다 (8)몸에 털이 나고 네 발을 가진 동물 (9)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그로로 (10)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12)추첨이나 상대편의 기권 따위로 경기를 치르지 아니하고 이기는 일 (13)장부에 적음 (15)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지체가 낮은 사람이 부르는 말. 손아래의 시누이. 아가씨. 그로로 (17)머리를 부딪쳤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의식 손실 (19)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 (21)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23)소리가 산 같은 데에 부딪쳐 되돌려 오는 소리. 메아리 (24)조개의 체내에 생긴 구슬 모양의 광택이 나는 결정 덩어리 (26)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장국에 푹푹 떼어 넣어 익힌 음식 (27)꽃이나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 그는 가방에서 돈을 ~로 꺼냈다 (29)젓의 한가운데에 도드라져 내민 부분. 젓꼭지

스도쿠

	5	8			9	3	4	
7					5		1	6
3	1	9			7			
2	7							8
4	8		1	7				
			3				7	
1						7		
			6				9	
				4	8			5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1	8	4	7	2	3	6
3	6	2	1	5	9	7	4	8
4	8	7	3	2	6	5	9	1
1	7	4	2	8	3	9	6	5
6	2	5	9	7	1	3	8	4
8	3	9	4	6	5	1	7	2
2	5	8	7	9	4	6	1	3
9	1	6	5	3	8	4	2	7
3	4	3	6	1	2	8	5	9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 month year CVS: _____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실수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쇼핑센터 | DC 건물 | 창고 | NNN

식당 | 프랜차이즈 | 카와시 | 호텔 | 그로서리 | 코인런드리 | 리커

##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쇼핑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b>SOLD</b> Popeyes \$2.5M VA. 새로지은 NNN 건물	<b>SOLD</b> Starbucks \$2.9M VA. NNN 건물, Drive-Thru	<b>SOLD</b> Chick-fil-A \$3.8M NNN 건물, Drive-Thru	<b>SOLD</b> Days Inn \$3.7M Days Inn, WM Co. 72 Rooms
<b>SOLD</b> Ruby Tuesday \$2.5M VA. NNN건물	<b>SOLD</b> DC 창고 \$2.5M DC. NoMa Metro 상권	<b>SOLD</b> DC 쇼핑센터 \$2.4M DC. Capital Hill 지역	<b>SOLD</b> DC 쇼핑센터 \$4.5M Popeyes 테넌트, 연인컴 \$32만
<b>SOLD</b> DC 아파트 \$1.5M DC NW. Metro 상권, 5 유닛	<b>SOLD</b> VA 창고 \$6.8M VA Industrial Flex	<b>SOLD</b> MD 아파트 \$2.2M MD Silver Spring	<b>SOLD</b> VA 창고 \$4.1M MD Hyattsville

### FEATURED LISTING

<b>MD 56,000 S/F Warehouse \$5.8M</b> 6 Acres, Charles Co. 8 Loading Dock, CSX 기차터, 26 유닛, 연 \$145,000인컴, 9,000 SF 증축가능, 공동투자 가능 <b>Pending</b>	<b>SUNOCO Gas Station \$1.9M</b> 건물 + 비즈니스 포함, 땅 0.76. MD PG Co. 연 \$15만인컴, SBA 용자가능, DC경계선, 하루3만대 교통량	<b>7-Eleven w/Gas Station \$1.6M</b> C-Store w/Gas Station 땅 1.2에이커, 연 \$78,000인컴 하루3만대 교통량, 3,000 S/F VA Suffolk, Absolute NNN
<b>ROYAL FARMS w/Car Wash \$2.8M</b> Gas Station w/Car Wash on Site 땅 2.7에이커, 건물 5,154SF 카워시 포함, 연 \$145,000인컴, Absolute NNN Ground Lease, 새건물, 하루 교통량 4만대, VA	<b>Cafe Bakery \$1.5M</b> 연 \$2.4M매상, Franchise, VA, 최상의 로케이션, 은행잔고(\$1M) 준비되신 실소유자에게 보여드립니다.	<b>Car Wash w/Gas Station \$1.1M</b> 연 \$250K 인컴, SBA 용자가능, Car Wash w/C-store, 깨끗하고 안정된 지역, VA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주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께 하실분  
▶이력서 :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소지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소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Information Clerk for YM Dental Lab.  
703-330-1990(Ask Mr. YM Kim)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티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일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중앙일보**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 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말뚝삽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펫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제공사 맡아서 하실 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정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 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 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버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 분, 성실한 분  
213-839-3735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덱,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먼트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뒷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 (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꾸어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 (\$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베드룸  
쓰실 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1 \$600 방2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 (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햄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트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 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 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구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쇼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쓰이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패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 Coming Soon 애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PG 카운티에 위치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뮈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영원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뮈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던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애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 메릴랜드 자이언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욕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세로 온살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베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 living room set \$300  
문의 : 703-581-2631

피아노(Sohmer & Co) Free로 드립니다.  
240-477-2612(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철크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까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텐드 4-9 S P 번까지 8개  
-던랍 (스페인제) 3-9 P S 7개  
-요크스 6-9 P 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족 소파 3명 \$200, 등산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병창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선타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헬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넌데일/패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라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텍,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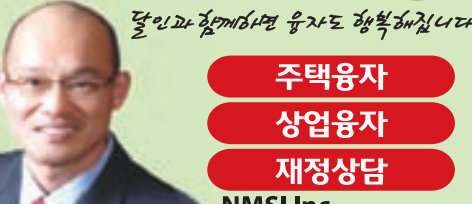
##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로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기 \$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슈프 0명  
\*스시 슈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통역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해 Up to 40% 할인  
**천공산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천공산삼 40% ~ 50% 가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결함·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단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품질방 효과 탄소열선 일직위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직위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퀸 \$379 트윈 \$229   퀸 \$279	 탄소 원직위선 항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직위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직위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펫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에 온수매트 트윈 \$349   퀸 \$419 트윈 \$299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	--	--	---	---	--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Contract**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SOLD**

**독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